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社說

日蘇會談

一

노몬한停戰協定成立을 契機로 日蘇兩國間의 懸案을 모주리解決코자 東鄕駐蘇大使는 모로토프蘇聯外務人民委員과 其間 折衝을繼續하여 이미 노몬한事件에 關係잇는 地方의 滿蒙國境劃定에 關하여는 日滿蘇蒙四國委員으로 組織된 國境劃定委員會가 近近 치타에서 會議를열고 具體的 協議를 開始하기로되고 兩國間에 抑留된 船舶引渡問題도 大部分 解決되엇스며 오래동안 缺員中이던 駐日蘇聯大使도 任命되어 日蘇間에 얼켜잇던 不透明한 雰圍氣가 漸次除去되리라는 期待가 濃厚하여가는 이지음 野村外相은 十五日午後 外務省으로 스메타닌新蘇聯大使의 來訪을求하여 改訂期가 今年末로 切迫된 漁業條約問題를 爲始로 北樺太石油石炭利權問題等 兩國의 諸懸案에 對한意見을 交換하엿다고 傳하여 今後도 會談을 續行할지 어찌지는 速斷키어려우나 如何턴 莫斯科에서의 東鄕, 모로토프會談進行에 비추어 보아 日蘇交涉은 드디어 本格化하엿다고 볼수잇다。

二

日蘇兩國間에 橫在한 重要懸案이래야 北洋漁業問題、北樺太利權壓迫問題、滿蒙國境確立問題等에不過하여 蘇聯의 態度에따라서는 곳解決될 問題뿐이다 第一問題되는것은 漁業條約問題인데 이問題를 蘇聯側은 從來經濟問題로 取扱하려하지안코 政治的으로 誘導하려하여 我方의 蘇支二正面作戰을口實로 이漁業問題解決에 非友好的態度를 表示하여오던 蘇聯側이 漁業問題에 對한 我方의 眞意와 確乎한 態度를 認識하고 또 我方이 蘇支二正面作戰을 云謂하게된 原因을 詳察하여 從來의 反日援蔣的態度를 是正한다고 하면 兩國間의懸案은自然히 解決될것이다 我方은 北洋漁業과 北樺太利權等 旣得利權을 確保하려는것으로 何等 그以上의 要求를가지지안코 또 支那事變에 잇서서는 旣次聲明한바와가치 東亞新秩序建設을爲하여 萬難을排除코 一路邁進하려는것이즉 蘇聯側이 이點만 잘認識한다면 我方도 구태어 蘇支二正面作戰을繼續할 理由가 업는바로 日蘇親善이 增進될것은 明若觀火한일이다。

三

그러나 蘇聯側이 從來의 態度를是正치안코 一時的으로 懸案을 解決지으려하면 問題는 永久히 問題대로남을것이다 萬若世間에 傳하는바와가치 蘇聯이 獨蘇不可侵條約을 締結한 以後 西部 國境方面에專力키 爲하여 一時的으로 親日態度를 보이는것이라면 歐洲戰爭終熄後는 그는또 다시 反日態度로 還元할것은 뻔한일이다 그러케된다면 日蘇問題는 至今보다도 一層더 惡化될것이다 然則 我方으로서도 日蘇懸案解決을 急히하여 蘇聯으로하여금 一時的으로 利用當할 好機會를 만들어주어 後日에 回復키困難한問題를 비저내지말고 悠悠히 蘇聯側의態度를 詳細히檢討하여 問題의 圓滿解決을 策하여야할것이다。

我軍北海市에突入
郊外서敗敵을猛攻
欽廉地方制壓은國府에大打擊

【香港十六日發同盟】廣州灣의外人側報道에 依하면 今朝日本軍은 北海에 突入하여 支那軍을 市街로부터 後退시킨後 이를追擊하여 今曉來 北海郊外에서戰鬪를하고잇다고한다 그리고 香港、北海間의 電報連絡은 今朝부터 杜絶되엇다

【廣東十六日發同盟】抗日廣西의 皇軍이 突然北海附近에 上陸하여 猛進、敵을 擊破하고잇는 欽廉地方은 廣東省西南部雷州半島以西地帶의 地域(八千八百五十六萬方里)人口約百五十六萬으로서 西方及北方은 廣西省에 接하고 南은東京灣에 또西南은 佛領印度支那에 隣接 東方에 佛租界地廣州灣이잇다 마치佛勢力圈에 끼인地點으로 三年前北海事件에 微하여 이地方一帶가 抗日思想이 極히 熾烈하며 또敵은 이 深刻한것을알수잇다 欽廉道는 合浦、靈山、欽縣、防城의 四縣에 區劃되고 蔡廷鍇麾下의 廣西軍及第十九路의 殘黨一味를 中樞로한 有力한 抗日民團軍이 潛在하여 蠢動하고잇는데 今次皇軍精銳가 戰火를 交하고잇는 敵도 勿論그들이다 戰局의進展과함께 西南路軍의 體制에 鑿어간 將政權의 海港을 가진 地方에 모든手段을 다하여 延命輸血의길을 求하고잇섯든만큼 皇軍西南制壓이 窺來하는 將政權에對한衝擊도 또 絶大한것이잇다

【香港十六日發同盟】當地支那人間에는 北海陷落에關하여 左와如한觀測을 하고잇다 海口、汕頭가 뒤를니어日本軍의 掌中에 돌아간後 北海는廣東、廣西、湖南、貴州地方의對外貿易港으로서 重要性을 띄어 廣西에서 産出하는 丙柱、桐油、藥品類는 全部北海及廣州灣方面으로부터 輸出되고잇섯다 또香港으로부터 肉類綿羊木材等이 相當히 輸出되고잇섯스므로 從來의一週間에 한번式잇는香港北海間의 定期航路가 中絶되면 香港에미치는影響도 莫大할것이다

○○島攻略時의 敵遺棄屍體五十

【東京灣北岸에서十六日井上、寺田同盟特派員發】지난十五日 欽州灣기피進入하여 午後六時同時에 ○○島를 攻略한 山縣、平野兩部隊의 先頭는 同島死守를嚴命바든 敵五百이 優勢으로 海邊에서 頑强히 抵抗하엿스나豪雨中을 巧妙히 迂回하여 마침내背面으로부터 그抵抗을排除하면서上陸에成功하고 卽時로 同島를 攻略한것이다 이戰鬪에서의 敵遺棄死體五十 鹵馬二、其他鹵獲品은小銃、彈藥多數에 達하엿는데 昨十五日朝原田、野村、納見의諸部隊에依한 欽州灣○○○附近의 上陸戰에서는 可驚할만한多數의 彈藥을 鹵獲한外에 敵遺棄死體六、捕虜一、小銃六이란戰果를거두엇다

要衝(欽廉道)○○에突入
精銳、欽州灣에續續上陸

【東京灣北岸十六日井上、寺田同盟特派員發】原田、成川、林等諸部隊는 十六日夕刻에이르러 欽廉道의要衝 ○○一角에突入한後 繼續하여 戰果를 擴張中이다

【東京灣北岸에서十六日井上、寺田同盟特派員發】南支派遣軍報道部十六日正午發表=

我南支派遣軍精銳部隊는 지난十五日未明 荒天을무릅쓰고 欽州灣西南地區에 敵前上陸을 敢行 猛進擊을續行하여 今日正午頃 벌써 欽州灣北岸西側地區를 席捲中이다 또後續部隊는 繼續하여 狂風怒濤를衝하여 今朝來欽州灣沿岸에 續續上陸中이다

豪雨中猛進擊
我軍困苦甚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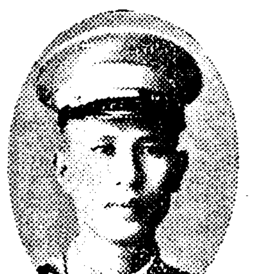
【東京灣北岸에서 十六日同盟特派員發】今次 北海附近 欽廉作戰에잇서서東京灣의海面一帶를 猛烈히 席捲한暴風은揚子江上空에 잇든低氣壓이 移動襲來한것인데 昨十五日午後부터 十六日 朝에걸처 海上은 波高二十五米突에 達하여 甚히 低迴하고 豪雨는 더부러 今日朝欽州灣西南地區에上陸前進을開始한 諸部隊의 困苦는 말할수 업고 敗敵에依하여破壞된道路를 烈風을무릅쓰고 難行苦勞를거듭하면서 猛進을繼續하고잇는데 同方面○○指揮官은 終始泥濘豪雨中에 肅然히서서 直接各部隊를 指揮하며 士氣를鼓舞하고잇다

大鵬灣猛爆

【廣東十六日發同盟】南支陸의荒鷲는 十五、十六兩日에걸처 大鵬灣의東北岸沙魚涌及 支流上의敵軍用船艇及 最近敵의抗日據點으로化한 惠州를猛爆하여 多大한戰果를거두엇다

업고 敗敵에依하여破壞된것을 遂는 廣西軍自身에依한 道路破壞와 相俟하여 大軍及 그兵站輸送은 不可能에가까워 敵이喧傳하는 廣西防備도 그脆弱性을暴露하여 當面의抗日敵軍은 完全히 孤立無援狀態에잇서 我精銳한 火力아페는 殲滅運命에 直面하고잇다

白崇禧直接指揮次
重慶에서急遽南寧向發



【香港十六日發同盟】昨日 日本軍이 北海附近에 上陸하엿다는 所聞을듯고 驚愕한 重慶政府는 急遽重慶에 緊急軍事會議를 招集하고 防禦對策을 協議中인데

重慶來電에依하면 桂林行營主任白崇禧는 近近重慶으로부터 南寧에가서 白身이 直接防禦軍을 指揮하기로되엿다

敵、桂林、梧州方面서 增援軍派遣

【廣東十六日發同盟】確實한方面에의情報에依하면 目下當面에잇는 第四戰區司令長官 張發奎及 湖南省方面에出動中인 白崇禧는 皇軍의北海附近上陸에 廣東方面守備의 第四十六軍(廣西軍第四師)에對하여 徹底的抗戰을 命令하는 同時에 桂林 及 梧州方面으로부터 增援軍의 派遣을命令하엿다고한다 그러나 南寧、梧州間의 西江은 目下減水期로 더욱이 永淥、貴縣의사이는 淺灘와 激湍이만허 小型의 民船조차 航行困難이요 또南寧桂林사이에잇는 昆侖關一帶險要

兩總長宮殿下
北海作戰首腦에御祝電

大本營海軍部公表

【東京電話同盟】大本營海軍部公表(十六日午後二時)軍令部總長宮殿下께서는 今日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 及川古志郎大將、南支海軍部隊最高指揮官 高須四郞中將 及 支那派遣軍總司令官 西尾壽造大將、陸軍南支作戰部隊指揮官에對하여 左記要旨의祝電을發送하섯다

海陸緊密한協同下에 周到한計畫과 果敢한實施로써 天氣의障碍를排除하고 安南海灣의上陸作戰에成功한것을 慶祝한다 그리고 將兵一同健康에留意하여 堅忍不拔 作戰目的의達成에 邁進하기를바란다

大本營陸軍部發表

【東京電話同盟】大本營陸軍部發表(十六日午後二時三十分)今次北海附近上陸作戰成功에對하여 參謀總長宮殿下께서 左記要旨의祝電을發送하섯다

▲參謀總長宮殿下께서 支那派遣軍總司令官西尾大將及 南支方面最高指揮官安藤中將에게

今次上陸作戰部隊가 海軍과協同하여 北海附近에서 荒天怒濤를무릅쓰고 敢行한 敵前上陸作戰은 此種作戰의劃期的進步를 立證하고 軍의鍛錬及 鍊成의精粹를 發揮하여 皇軍威武를 中外에宣揚하엿다 기괴 그勇壯을稱賀하는 同時에 더욱 武運의長久하기를祈祝한다

▲今次作戰에서의 荒天下未曾有의 敵前上陸을 遂行시킨 海軍의 協力에對하여 深甚한謝意를 表한다

▲陸軍大臣으로부터 支那派遣軍總司令官 西尾大將及南支方面最高指揮官 安藤中將에게

貴軍이 隱密周到한 準備와緊密適切한 陸海軍의 協力과에依하여 荒天下 能히至難한敵前上陸에 成功하여 赫赫한戰果를거두엇는데 對하여 祝意를表하는同時에 더욱武運의 長久하기를祈祝한다

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 及川大將及南支海軍部隊最高指揮官 高須中將에게

貴艦隊가 我陸軍北海附近上陸作戰部隊에 對하여 緊密한協力을하여 荒天下能히 至難한 上陸作戰에 成功하여 赫赫한戰果를 거둔것은 同慶하여마지안는다 멀리 貴艦隊에 對하여 深甚한慶祝과 感謝의意를 表한다

海軍省公表

【東京電話同盟】海軍省公表十六日午後二時

吉田海軍大臣은 今日支那方面艦隊司令長官及川古志郎大將 南支海軍部隊最高指揮官高須四郎中將及支那派遣軍總司令官西尾壽造大將 陸軍南支作戰部隊指揮官에 對하여 左記要旨의祝電을 發送하엿다

◇祝電要旨

海陸緊密한 共同으로 北海方面敵前上陸作戰의 成功을보게된것은 慶賀不堪한다 將兵各位의 健鬪를 빈다

日滿支食糧需給對策
基本的協議完了
原案作成코近近最後的檢討

【東京電話同盟】戰時下에잇서서 日滿支三國을一貫하는 綜合的食糧國策確立을先決要件으로 過般來 企畫院의斡旋下에 滿洲國及北中支의興亞院連絡部로부터 農務食糧關係官을招致하고 朝鮮、臺灣等外地關係官의 參加를求하여 農林、拓務等 內地關係各廳과의間에 日滿支相互間 主要食糧需給에關한 事務協議를하고잇섯는데 十五日 會議에서 爲先 三國間基本的協議를完了하엿다 그러므로 企畫院에서는 今後右事務打合會議에서 滿支現地當局으로부터提示된 食糧自給의 基本的所要數量을基礎로 內外地의 輸出入 飼料需給關係等을 對照하여 農林、拓務、對滿事務局興亞院等의 關係各官廳과 個別的으로 政治折衝을한後 今月中에 日滿支三國을 通하여 農産食糧의 生産을爲始하여 配給消費에 關한 全過程을 一元的으로 統制하는 食糧需給對策原案을 作成하여 今月末 或은 十二月初부터 懸案인 日滿支三國 食糧對策連絡協議會를 開催하고 右原案을中心으로 綜合的 食糧國策의 最後的檢討를 하기로되엇다

重要物資의 能率委員會設置

【東京電話同盟】優秀技術을公開하여經濟의合理化等에依한生産力擴充을促進시키기爲하여商工省에서는 重要物資別로 能率委員會를設置하기로되어 立案을進行시키고잇섯는데 이번에成案을엇게되엿스므로 이에關한經費十五萬圓을 十五年度豫算에 計上하고 또 今年度分은 第二豫備金支出을 目下 大藏省과折衝中이므로 느저도 十一月中에는 委員會의 設置를 完了할 豫定이다 그리고 綜合的國力의 發展을 企圖하는 戰時計畫經濟下에 잇서서 技術의公開交涉에 依하여 生産力擴充을推進하는것은刻下의急務이므로商工省에서는 强硬한 決意로서이에 進出할模樣이다

共軍萬二千包圍
大行山脈의殲滅戰展開

赤化掃滅戰
中共의策動齟齬

【○○前線에서十六日發同盟】晉冀察邊區下의 第八路軍百二十師를中心으로한 北支共産軍은 벌써부터 河北省西北部一帶山岳地帶에 蟠居하여 新支那中央政府成立의 날이 迫近하엿슴에도 不拘하고 게릴라 戰術로써 어디까지 北支治安攪亂을 企圖하고 잇스므로 我軍은 斷乎共軍의 潰滅을 期하고 ○日以來作戰을開始하여 各部隊一齊히 進擊을開始하여 包圍態勢로서 漸次이를 壓縮하고잇는데 目下 包圍圈內의 敵은 第四師 陳毅混成三千及第百二十師 軍獨立第一師楊成武(三千五百)第五十八路張蔭梧(六千)合計一萬二千五百의 敵은 지금 完全히 包圍되고잇는데 이에 對하여 進擊하고잇는 我○○、○○의 各部隊는 豪雨를 무릅쓰고 重畳한 大行山脈의 峻嶮을넘어 漸次包圍圈을 縮少하고잇서 殲滅的打擊을줄 壯烈한山岳戰은 方今 開始되려고하고잇다

【北京十六日發同盟】北支의赤色地區인 晉冀察邊區一帶의 山岳戰에 ○○日各部隊 精銳의 包圍戰은 行動開始로展開、北支共産軍動向에 絶大한 影響을 주엇다卽 最近 西北赤色地區 確立을 目標로 陝西로 移駐中이라고 傳하는 北支共産軍中 가장 그 動向이 確實한것은 이 晉冀察邊區 賀龍軍이며 移動開始는 이미 가리울수업는바로되엿다 그러나 邊區軍은 自己移動後 北支에對한 遊擊戰展開를 放棄할수업는 原則的必要가잇서 十八集團軍所屬正規軍以外의 各遊擊隊組織에 狂奔하고잇서 따라서 正規軍移駐는 可急的緩慢히할 모양이엇는데 此時에際하여 突如疾風的으로開始된 我軍의邊區掃滅作戰은

一、邊區를 徹底的으로 覆滅하므로써 今後北支에서의 遊擊戰의指導的根據地를殲滅할것

二、西北移動兵力에 對한 絶大한 牽制及移動兵力自體를 捕捉殲滅할것

의 二點에서 十八集團軍의 賀龍軍所屬第百二十師로 하여금 進退兩難에 陷入케 하는것으로 將來北支遊擊活動乃至는 中共의西北制覇에 對하여 大動搖를 招來하는것이라하여 頗히 注目된다

須磨情報部長上海着

【上海十六日發同盟】外務省須磨情報部長은 現地視察을 爲하여 十六日午後二時半空路로 上海에 到着、總領事館에 들엇는데 一兩日當地에 滯在한後 南京에向할터이다

北支英軍全部撤退
上海部隊中一個中隊를移駐

【天津十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 經濟와가치 軍事上 理由에依하여 北支駐屯軍中一部를 撤收시키고 撤退하기로 決定하엿는데 이에對하여 十六日北支駐屯軍司令官 존·로리少將은 我天津防衛司令官에게 書狀으로서 北京을 包含한 天津方面駐屯步兵 蘇格蘭大隊(約六百名)를 全部撤退시키고 上海의이스트·싸레이聯隊第二大隊中에서 一個中隊(約百名)를 移駐시켜 그中一個小隊를北京에 他主力을 天津에 各各駐屯시킨다는旨를 正式通告하여왓다는데 撤退時期는 未定이다

外人小賣商을 比島서彈壓

【마닐라十六日發同盟】케손大統領은 十六日比島聯邦政府成立四周年記念式에 際하여 記念演說을 試하바 席上에서 政府는 比島內小賣商을 外國人의 손에서 比島人의손으로 奪還하고 또比島産業의利益은 比島人에依하여 分配되도록再組織하지안흐면안된다 라고말하고 國家的國家主義政策의 意圖를 表明하엿다 이에依하여 華僑方面에는 大打擊을 주는것이므로 華僑側에서는 벌써 反對의運動을 開始하엿다

重慶政府 財政處理에奔忙

【大阪電話同盟】十六日大阪府產業部에의 入電에依하면 重慶政府에서는 來年度의 財政政策을 協議하려고 來月初旬 香港에銀行家會議를 開催할模樣이다 그런데 軍部는 最近 更히 法幣를 强化하려고 左記五項目의 注意事項을 各銀行에 示達하엿다

一、投機的策動을 相互間에 抑制할것

二、法幣의 海外流出을防止할것

三、銅貨의 貯藏을 禁할것

四、代價券의 發行을 禁止할것

五、法幣에關한不正取引을禁止할것

共産黨問責案 六中全會서討議

【香港十六日發同盟】香港來電에 依하면 六中全會는 十五日豫備會議에서 蔡元培、李石曾及右派十名의 委員連名提案의 中國共産黨問責案을 討議하엿다 同案은

一、延安을 中心한 共産黨의特別行政撤廢、陝、甘、寧邊區政府의解消

二、中國共産黨의 秩序紊亂行爲에 對하여 即時嚴重한 手段을 講求할것

等二項을包含하고 元老派는 鄒魯、龍昊、薛岳其他西南將領의共産黨反駁通匪에勢力을어더 同案이通過되도록 매우努力하엿는데 陳誠其他의少壯派는 蔣鼎文、朱紹良等西北將領의支持를어더 反共案의 實現阻止를하여 雙方의 論爭은 極히 激烈하엿는데 마침내 今日 本會議에는 上程을 보지못하엿스므로 同案은 朱紹良、賈國光等의 連名提案인 國民大會招集과同時에 十七日或은 十八日本會議에上程을 보게될模樣이다

朝鮮米穀增産計畫

【東京電話同盟】戰時食糧確保의 急務는 當面의 重大問題로 內外地關係當局은 이에 根本的對策樹立에 腐心하고잇섯는데 近近企畫院에서 開催될 日滿支食糧對策連絡協議會에앞서 內外地關係食糧需給의 基本的協議를하기로되어 十八日上京의 森岡總督府警務局長 及 二十日頃 大野朝鮮總督府政務總監의 來京을 機會로 拓務、農林、大藏、企畫院과의사이에 明年度以降의 生産配給消費의 一元的綜合計畫樹立에 對하여 協議會를 開催하기로되엿다

그리고 朝鮮에서는 이미 十五年度부터 十一個年計畫의 米穀增産計畫을 樹立하고 明年度豫算中에 右計畫에 따른 所要經費를 要求하여 昭和二十年度에는 五百六十萬石의 增産 二十五年度에는 六百五十萬石을 增産하기로되어잇다 現在 朝鮮米穀生産基礎高는 二千三百萬石이므로 十一個年後에는 約三千萬石의 生産을 確保하여 滿洲國의米麥大增産計畫과 倂行하여 日滿支三國의 食糧不安一掃를期하고 잇는것은 注目된다

辭令

(十六日發令)

任朝鮮産業技師(一等待遇) 北川 春富
補忠淸南道産業技師
全羅南道産業技手 小見山 樹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全羅南道産業技師
平安南道産業技手 山地 兵平
任朝鮮産業技師(七等待遇)
補平安南道産業技師
總督府專賣局事務官兼總督府事務官
依願免兼官 門脇 默一
總督府專賣局事務官 門脇 默一
總督府遞信局事務官
依願免本官(各通) 鎌田 周一
(各通)朝鮮産業技師 緒方 莫
同 熊谷久四郞
依願免本職(各通)

鐵、厚兩相補充
豫算閣議前에實現乎

【東京電話同盟】阿部首相은 鐵道、厚生兩大臣의 補充問題에關하여 愼重히 工作을 進行시켜 政民兩黨其外各方面의 情勢를 觀察 補充의時期及方法에對하여 考慮를하고잇섯는데 最近漸次그 機가 成熟한것으로 보여 十六日金光拓相과의 會見에서도 政友方面의情勢를 聽取하는一方意見의 交涉을한模樣이다 그리고 首相으로서는 閣僚補充으로 議會對策의 하나로하여 補充의時期는 議會召集直前보다도 明年度豫算案의 決定前에하는것이至當하다고 생각하고잇는모양이므로 빠르면來週、느저도豫算閣議前에는 具體化될것이아닌가고보이는데 首相은 近近 小原內相、永井遞相、個別的으로會見하여 諒解를求하게될것이다

物價局擴充案
廿一日閣議附議

【東京電話同盟】商工省에서는價格政策의 强化와 價格停止令 以後의 適正價格策定을 爲하여 物價局의 擴充强化에 關하여 여러가지案을考究하고잇섯는데 大體로 그成案을엇엇스므로 來二十一日 閣議에서 物價局官制改正案及擴充强化에 따르는人事를附議決定 實施하기로 되엇다 이리하여物價局은 現在의 二部四課 制로부터 三部六課制로되어勅任部長一名을 增加하기로되어 技師、事務官、技手、屬官을 倍增하여 適正價格의 公定에邁進하기로 될것이다

市況(十六日)

◆東京短期◆

	後引	高價	低價
東新	一五七·四	一五七·三	一五五·〇
大新	八二·七	八二·九	八一·五〇
鐘紡	一八四·八	一八五·〇	一八三·五
鐘新	三四·八	三五·二	三三·〇
滿業	八三·二	八三·四	八三·一

◆生糸後引◆

當限 一八五〇〇 先限 一八四〇〇

伯政府金塊購入

【리오、데、자네이로九日發 通商】뿌라질政府는 米伯金協定에基하여 去十月中旬 米國政府로부터 二百萬弗의金塊를 買入한바 今回다시同國은 三百萬弗의 金塊를購入하고 또뿌라질政府는 十一月부터 十二月에걸하여 繼續하여 金塊購入을 計劃하고잇다한다

人事·集會

▲李楨伯氏(南洋廳사이판醫院婦人科科長) 赴任人事次來社

綜合課稅 政治的裁判
大野次官、藏相에要望

【東京電話同盟】稅制改革案中의 第一種 所得綜合課稅는 이미 大藏省議에서 綜合課稅의 要旨를 承認하엿다 그具體的方針에關하여는 金融政策及 公債政策에 支障이 업도록 立案할必要가잇다는 意見一致를 보앗는데 明年度豫算에잇서서의 歲入推算關係도 잇고 또同問題의 解決이 느저지때문에 徒然히 金融界其他에 惡影響을 波及하는 點도 考慮할必要가 잇스므로 十六日大野大藏次官은 靑木藏相에 對하여 될수 잇는限 一兩日中에 政治的裁斷이잇기를 要望하엿다 그러므로 靑木藏相으로서는 主稅局試案을 基礎로하여 省內外의意向도參酌하고 十九日裁可를아페두고 그結末을 보게될것으로 期待된다 이와 倂行하여 難關이라고보이는 産組課稅에 關하여도 農林省의 反對意向이 依然히 强硬하므로 藏相으로서는 結局酒井農相及 伍堂商相과 會見한後 어떠한 政治的解決을 圖謀하지안흐면 안될狀態로될 模樣이다

外務辭令【東京電話同盟】

外務事務官男爵 藤井 慶三
任公使館一等書記官(三等) 命國際會議帝國事務局事務官
公使館一等書記官兼領事 林 武雄
任大使館一等書記官兼公使館一等書記官(三等)命土耳其在勤
命希臘國在勤
公使館一等書記官 淺田 俊介
兼任總領事(四等)命다이國在勤命盤谷在勤 免國際會議帝國事務局事務官
外務事務官 吉田 賢吉
任公使館三等書記官兼領事(五等)命南阿聯邦在勤 命케프타운在勤
領事 甲斐文比古
任大使館三等書記官(六等)命米國在勤

案內書贈呈

第一生命의決算好調

□當社는去八月末日第三十七年度諸計算을締切 十一月十五日의社員總代會에서 決議되엿스므로 加入者各位께報告하옵나이다

□年度末契約高 參拾壹億九千七百萬圓 前期末에比하야 五億七千萬圓增加
□新契約高 七億五百萬圓 前期에比하야 壹億九千七百萬圓增加
□年度末資産 四億七千七百萬圓 前期末에比하야 六千六百萬圓增加
□收入保險料 壹億壹千參百萬圓 前期에比하야 貳千壹百萬圓增收
□利息收入 貳千貳百六拾萬圓 平均資産에對하야 五分二厘利廻
□死亡保險金 貳千六百六拾萬圓 死亡豫算에對하야 七割八分
□事業費 壹千五百九拾萬圓 收入保險料에對하야 一割四分四毛
□剩餘金 貳千貳百八拾萬圓 期末資産에對하야 四分八厘

□責任準備金의積立은 純保險料式으로參億九千七百萬圓。記帳資産四億七千七百萬圓(時價五億貳千八百萬圓)으로서 責任準備金과 時價資産의差異는壹億參千壹百萬圓이다。

□本期事業上의 利益金貳千七百貳拾壹萬圓、內四百參拾參萬圓을資産切下로하여 貳千四拾萬圓을契約者配當에積立하야 配當準備金總額六千六百萬圓을有함。

□事變戰死者에게 四百拾萬圓의保險金을支拂하엿스나 오히려全死亡은豫定의七割八分이며 더욱決算은好調의一路에有함。

東京·日比谷
第一生命保險相互會社
電話丸ノ內(23)五一〇一(代表) 五一一一(代表)

驚異的發明!
注射代用內服殺菌劑
三成痔疾丸
痔疾
初期에는말할것도업고 제아모리 數十年된惡質痔疾이라도 이藥을服用하면 不過三四日에 止血消腫되고 一個月이면 痔根이完全히消滅根治됩니다
藥價 輕症用 三圓 重症用 六圓 完治用 十圓
發賣元 資生堂藥舖 平壤府船橋里四三 電話三四二一番 振替平壤八六六番
代理店大募集

虛弱の恢復に 世界的强壯劑 効果本位
ネオトン

優秀한 胃腸救急藥으로써 賞讃을博하는
十安川コロダイン
東京 安川晃榮堂
全國藥店에有함

ダイヤモンド專門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 電本九九一

戰時服過冬設計 ㊀

事變의 敎訓인 솜옷의 貴重性

總督府 農務課當局 談

(上)

추위는 닥처왓다 지난여름에너무 더웟스므로 이번겨울은 그와정반대로 무명옷감은절면지초를가주아버렷 떨지추고 살림마다 버려노흔것은 나 우리라 무심을 만히너허서 편 옷감을 고에먼 행하다 조선옷감이나 양복감이 하는이 나 모두가만찬가지로 그런것만 도잇다 이다 그러나 갑슨 도리어 비싸 따스한 다 솜에 다오면 갑싼한옷감을 이다 이러며 무슨방법으로 주 입을 막을 도리가 잇슬가 옷감을 어떠케 절약하면 리용할 수가 잇슬가 이제 관계각방면의 이야기를 드러보자—

사변후 가장 현저하게달러진것은 옷감이다 순면포는 조흔비단보다 구하기어려워젓다 요사이는 어려운것보다도 전연만들수부터업다 국내에서쓰는 면포의원료인 솜 이것이 전부외국에서드려오기때문에 국제무역수지관계로 수입을극도로 제한하지안흐면안되게된때문이다 허수해보이는 무명옷이 기실은 박래품(舶來品)이라는것을 알게된것은 사변이준 큰교훈의하나이다 갑싸고 튼튼하기때문에 옷감으로 가장만히씨이는 무명원료인 솜을자급자족하고저 총독부에서는 소화팔년부터 십개년계획으로 면화증산계획(棉花增産計劃)을실시하야 착착성적을 나타내고잇기는하나 목표인 사억이천만근생산은 아직 전도요원이다 금번은 더욱남선지방의 가물때문에 작년보다도수러드러 이억근내외바게안될예상이다 그중육할이상은 군농회에 공동판매로 매출하야 스·파와의 혼방원료로 씨일러이고 남어지 팔천만근가량이 자가소비(自家消費)로서 면작농가의옷감이 될터이다 이와 가치 솜이부족하기때문에 일반이입는무명은 모두상당 혼방품으로되엇스므로 약하느니 하여도 할수업는사정이다 구주동란때문에 그나마들어오던 면화가 일층더어질여러가잇는것이 지금형편인데 이러케되면 일반민수품(民需品)으로는 면화는조금도 쓰지못하게될른지도모르겟다 내지에서는 벌써부터 「울·수·파」를단행하고잇지안혼가 무명옷이라면 천하게여기던 사람들은 당분간 무명을구경조차하지 못하게되엇다 솜이귀한 겨울은 찾것이나 전시체제이라 정신으로 극복할각오가필요하다

◇……◇

사변후 솜과가치 귀하여진것에 털옷이잇다 박래품인때문에 일반민간용을 극도로제한하고잇는까닭인데 스·파절할에 털삼할이 규정이되어잇다 이것조차 감당할털이 넉넉지못하여 한때는 혼일입할이라는 물건까지 시장에 나왓섯다 털에대하여서도 조선에서는 남면북양(南棉北羊)이라고하여 면양증산계획을실시하고잇스나자급자족은 아직까마 득하다 양복을입을수가업고 추위도순 피복체제」(皮服體制)이다 「전시 이것을기회로 관민이 일치협력 하여 솜이고 털이고 자급자족 의 목표가하로바삐 달성된다면 그야말로전화위복(轉禍爲福)이라 고 할수잇슬것이다

京春線을延長하여 中部朝鮮橫斷計畫

三陟, 京仁兩工業地帶를連絡

동해안쪽의약진과 발전에발마추어 경성춘천사이의 경춘철도를다시 강원도변지로 사십팔키로연장해가지고 강원도 척량산맥(脊梁山脈)을 꿰뚤허 동부해안선과 연락시켜 인천 경성 춘천 인제(麟蹄) 양양(襄陽)을 연락하는 중부조선의 일대횡단선부설계획이 착착진행중이다 이 철도가 실현되는날에는 경인공업지와 삼척(三陟)공업지대를연결하는 가장가까운 거리가되어 산업국책상 자못중요성을 띄게되나 동철도를부설하는데는 산악이첩첩히노혀 상당히어려운공사일것을예상하고잇다 그러나조선철도당국으로서도 중부횡단선을완성하는데는 중대관심을가지고잇스므로 경춘철도측의 요망에대하여서도 내부적으로 심의를진행하고잇서 오래지안허 구체적결정이 개시될것이므로 동선부설공사를 착수하는것은 시간문제로되어잇다

南浦鹽販賣組合義捐

진남포소금판매조합(鹽販賣組合)에서는 일전 제삼회정기결산총회를열고 백원을 한해구제의연금으로내기로결정하고 십오일 정신총동원전매련맹을통하여 의연하엿다

"空論으로부터實際에"

興亞奉公日은興隆的氣分으로

忠南慶南視察後川島總裁 談

정신총동원조선연맹총재 천도(川島)대장은 십륙일오후 기자단과 회견하고 저번의 충남경남시찰과 현하의 연맹활동상황에대하여 다음과가치 말하엿다

충남과 경남두도(道)를 시찰하엿는데 한해지는 모두 당국의 지도를밧고 천재(天災)를 극복하려는 의기에 불타고잇서서 미듬성잇섯다 황도(皇道)정치의 은혜를입는 조선민중은 행복되다고 느꼇다 각지모두 연맹애국반의 활동에대해서는 날로 실천화하여 종래의 공론으로부터떠나 점점 일상생활속에 미처들어가도록 구체적활동으로 하는것은 기쁜 현상이다 최근도시의 연맹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진 모양인데 원래 도회인은 자숙기분이 모자라므로늘 제일선 장병의 고생과 결핍을 생각해야할것은 물론이어니와 동시에 자숙이란것이 의기소침(意氣銷沈)의형체로 나타나서는 안된다 흥아봉공일이라는것은 글자그대로 흥륭적(興隆的)기분을 총후민중에게 심어 적극적으로 신동아건설에 힘쓰도록 지도방침을 세워야한다

紀元二千六百年 奉贊展覽會

總督府主催로開催

총독부에서는 기원이천육백년에 해당하는 명년기원절을 중심으로 이월칠일부터 십륙일까지 정자옥백화점(丁子屋)에서 기원이천육백년 봉찬전람회(奉贊展覽會)를 개최하기로 되엇다 봉찬전람회는 내지팔대도시에서도 벌써개최하여 만흔감격을일반에게 주엇는데 내각의봉축사무국에서 만든영사"지오라마"약사실장면을 비롯하여 내지일류화가가그린 조국창업회권(肇國創業繪卷) 여대여통 사진등으로 조국정신의 발양을 목적하는 역사자료가 출품되므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기하는바 크리라고 기대된다

交通關係技術者 懇談會

약진경성의 시가지확정과 여개때트는 교통시설문제에 관한 경성부, 경기도, 총독부삼당국의 관계기술자간담회는 십륙일오후 세시부터 부청에서 열렷다 간담회에는 산강(山岡)총독부토목과기사 경기도정전(町田)토목과장 철도국경성 토목과기사 장안(長安) 경성부공영부장 등이 출석하야 시가지계획의 현상과 장래에대해서 기술자 로서의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의견을교환하엿는데 특히요즘 비번히 문제가되어잇는 만원전차의 완화책에대하여서도 삼당국간의 의사를 소통하는동시에 금후의 연탑방면과 기타대책에대하여서 장시간에걸처서 토의한바잇섯다 이날출석한 삼당국기술자는 다음과갓다

麥飯普及强化!

—明春까지는米一斗에麥三升比例로小賣—

府內서一年間廿四萬石節米

경성부에서는 쌀을애끼기위하여서 부내 신설 중앙시장에대하여 쌀한말에 보리한되씩 끼지안는다면 팔지말라는 명령을 내리는한편 요리점 음식점 백화점식당등에대하여서도 잡곡석근밥만을 팔기를권하는등 절미운동의실적을 거두고저 백방으로노력중인데 부당국에서는 이번에 시험한결과를 보아가지고 아프로 적정더 이운동을 강화할방침으로 현재는 쌀한말에 보리한되씩이지마는 십이월부터는 두되로올리고 다시 명년일월부터는 서되로올려서 결국쌀한말에대하여 보리서되씩을 석거먹도록 해보려는 계획을세우고잇는데 보리를 억지로 석게햇대자 일반이 밥맛을 부치지안는다면 도로어 낭패될지경도업지안흐므로 부당국에서는 특별신중을기하여 되도록 억지는피 해나갈 요량으로 그처럼 삼게단으로나누어서 한달에 한되식늘게 획을 세운것이다 이러케 쌀한말에 보리서되씩을 석게되는날이면 현재경성부민의 일년간백미소비량은 팔십만석이므로 그삼할 즉이십사만석의 쌀은보리로써 대신할수잇게될터로 부민의 협력을 절망하고잇다

小賣商도許可制

黑字의業態가約九○%判明

【奉天】봉천상공회(奉天商工會)에서는 경제통제하(經濟統制下)에 잇서서 당연히 (公會)에서는 계획경제체제하(計 도리를 소매업자통제의 기구개 여젓다

상이며 만주측으로보면 민국시대이전(民國時代以前)에 개업한것이 삼십퍼센트에 불과하고 그대분이 강덕시대(康德時代)에 개업한것을보면 대개소매상이란 그수명이짧고 변화하기쉬운것을 가히알수잇다 이제영업상태를보면 결손상태(缺損狀態)의 상점이 일본인측 칠퍼센트 만주인측 사퍼센트로 기타손익(損益)이평균한것이 구십퍼센트인데 대체적자(赤字)를보이는점은 포는미국상과신탄상이라하며 일본인측상점의 경영곤난의원인은 대부분이 물자부족과 동업자과다 기타소비조합의 압박과백화점등의 영향이오 만주인측으로는 동업자의과다 상점퍼센트 그다음은금융난(金融難)과 물자부족인데 비교적 물자는 일본인측보다 만주인측이 풍부한편이요 자금융통은만주인측이 원활치못하다하며 아프로 영업을 그대로 계속할수잇는편이 일만인을통하여 구십오퍼센트이며 기타는 전업(轉業)키도 매우곤란한형편임으로 아프로는 소매업자는 허가제(許可制)로되리라는 의견이만타한다

告發、說諭、注意等 四千餘件을突破

▲鐵道事故防止週間中惡成績

지난달 이십사일부터 삼십일까지 경기도에서 실시한 철도사고방지주간의 여러가지 행사의 결과로 철도사고의 발생은 일반민중의 철도에대한 관념이 적은것과 후편의 불충분 사고방지시설의 불비한것이 명료하여젓다 즉 경기도 보안과에 드러온 보고에의하면 주간중경부(京釜) 경의(京義)의 양선을 비롯하여 경성을 중심으로한 국선 사철등 십개선에서 선로통행 아동들의작난 가축을 노아기르는것 철도길로의 통행등을 취체한결과 고발(告發)설유 주의를한것이 사천이백팔십오건이라는 놀라운 수짜에 달하엿다 그러데 이번주간에 경찰과 철도측에서 계당국에서 철저한 취체와 지도를한결과 최근에개통된 경경(京慶)경춘(京春)철도에서도 요사이는 사고가 거이업서 다대한효과를 어덧다

儒道聯合會

十八日、大野總裁推戴式擧行

지난시월십륙일 경성에서열렷던 전조선유림대표회합에서 결성하기로결정된 조선유도련합회(朝鮮儒道聯合會)에서는 근일중 각도연합회도전부결성되므로 각대표가모여 십팔일오전열시 경성제대강당에서 동연합회총재로 대야정무총감(大野政務總監)을 추대하는추대식을 거행하기로되엿다 이날오전아홉시부터는 경학원(經學院)에서 각도연합회지도에관한 협의를 할터이다 이로써 삼십만유림는 연합회를중심으로결합하여 "유림부대"(儒林部隊)로서 신동아건설의정신운동에 참가하게되는것이다

서울구경이탈!

서울구경에팔려 몸을다친사람

—시흥군동면가리봉리(始興郡東面加里峰里)에사는 신축남(申六男)(二六)은 십륙일 난생처음으로 서울구경을하려 자전거를타고올라와 여기저기돌아다니다가 의주통(義州通)파출소아페 이르러 불자동차가지나가는것을 한참자미잇게보다가 하왕십리(下往十里)에사는 박종영(朴鍾永)(三○)이 끄는마차에치어 적십자병원에 입원치료중인데 그는팔자에업는 서울구경은 다시할것이아니라고 울고잇다

母性愛의羞恥! 旅館에棄兒潜跡

【咸興支社發】 지난오일 신북청(新北靑)의전 영흥려관(永興旅館)에는 정부인이 어린애를다리고서 투숙하엿다가 그이튼날새벽 어린애는 그어머니는 도라나고 업서젓다 숙박부에는 신포(新浦)거주 김복순(金福順)(二)이라고 썻슬뿐 종적은그날자로 업서지고말엇다 어린애는 그어머니를 차저서 울고만잇는양이 보는사람의 눈물을자아내고 잇섯는데 생활난의계획적기아로보인다

棄兒에도새方式

천연스럽게어린애맥기고도망

새로운방식의업동이—십오일밤 아홉시 부내도화정(桃花町)이십일번지의사십이호 김익재(金益在)의집에 한사십가량된 여편네가 나타나서 한살가량된 사나이를안고 차저와서 「이 어린애는 이엽집에두고가야할 어린애인데 문을잠그고업스니 잠깐변소에갓다올 동안 마터달라」하고는 슬며시업서지고말어 김익재가용산서에게출하여왓스므로 동서에서는 어린애의어머니를 찾는중이다

激增된郵便爲替

十月中振出二百七十餘萬圓

경성체신분장국의 조사에의하면 시월중 경성부내 각우편국소에서 취급한 우편위체는 진출총수 만사천삼백팔십칠구(口)에 칠십칠만원이고 불여(拂戾)가 칠만여구(口)에 이백칠십만원이다 이것을 작년동월분의 취급에비하여보면 진출이 칠십이만오천오백육십사원(사할 오리)의 각각 놀랄만한증가를보이고잇다

出奔妻搜査

수원군일왕면 음장리(水原郡日旺面長里)사십삼번지에사는 필육행상 김복성(金福成)은 삼년전 홍영식(洪永植)이를 안해로맞고 살아왓는데 가튼동리에사는 유만복(柳萬福)이라는 자와배가마저 김복성이가 나가고업는틈을 타가지고 현금 이백원 옷감이백여원어치와 사내옷까지모조리 싸질머지고 도망을가고말엇스니 차저달라고 시내각서에수사원을 제출하엿다

年末警戒開始

【間島支社發】연길경찰서에서는 세말범죄의 미연방지책으로 예년과가치 청원을동원하여 경계망을벌이고잇다

第五期鑿岩工實習生

櫻谷正 李一成 千昌浩 金時蕃 李小萬 愼熙晟 鄭煥八 安禎根 金德龍 張錫基 宋德永 崔浩乾 李遇錫 劉昌烈 田登 鄭海英男 車炳杜 金兗鉉 曹圭南 李普培 金圭晟 谷正次 尹相定 姜廷三 朴成根 林富榮 孟榮燮 吳啟善 成見信太郎 尹鍵秀 王宗善 沈鳳澤 田中光重 金龜鉉 尹泰圭 安鳳洙 坂本秀隆 洪仁秀 落合久二 定光圭一 敬李洙 丁在命 吳連植 李元鎔 河榮鉉 孫萬洙 金東國 李浩根 佐藤哲人 金東佑 李東彝 吳敎富

書簡쓰는法

이번大誠社에서 發賣한四六判總크로-스金文字入箱入 五百餘頁『手紙百科大辭典』은實際上實用的으로組織的으로編纂되여 『年賀』『暑中』『寒中』『病慰』『弔慰』『招待』『謝禮』『照會』『男女交際文』『商業文』『就職의書簡』等書式을實例로大集錄하고 더욱口語文例와候文例로分類하여應用自在하다그리고 附錄에는毛筆펜字草書辭典이잇스므로錦上添花格이다또別册『現代新語辭典』과『實用いろは引辭典』이添附되엿다 定價金三圓인데大割引三册特價單金一圓七十錢에特賣中 東京市中野區小瀧町四二大誠社에葉書로『手紙百科辭典』을보내라고기별하면代金은着本拂로送本한다

中年女轢死 疾走自動車에

【金堤支社發】지난십사일 오전 열시에 영산포(榮山浦)에 영업소를둔 전남자동차주식회사 소유 승합자동차운전수 조화석(趙和錫)은 장흥군 안량면(長興郡安良面)을 진행중 주양순(朱良順)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 장흥 문전(門田)공의에게응급수당을 바덧스나 수시간후드디어 죽엇다고한다

따끔

정직해서 매마진 카페여급이 자살미수, ○ 때리는것쯤야 『정직한형벌』이지. ○ 싸다고떠드는 야시(夜市)는질상 비싸더라고, ○ 나제 비싼물건이 밤이라고헐할까?

曆

▲十一月十七日(金曜日)陰十月七日 ▲干支戊午 ▲日出午前七時十四分 ▲日南中零時十八分 ▲日入午後五時二十三分 ▲晝間一○時九分間 ▲月出午前十一時五十八分 ▲月入午後十時四十八分 ▲滿潮午前八時四十分 午後九時二十分

今日天氣…晴曇溫

廣告

今日運動

▲籠球=中等籠球聯盟戰 第七夜 電機對英彰(六時三十分)京師對中東(七時二十分)培材對大東(八時十分)養正對普成(九時)於鍾路靑年會館內『코-트』入場料十錢均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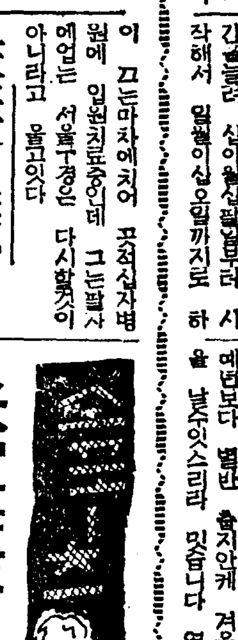
米國代表歡迎

昨夜、拳聯主催로

스포-츠의使節 米國拳鬪軍을마지한 全朝鮮拳鬪聯盟에서는昨十六日午後六時부터 食道園에서歡迎會를 열어 會長高元勳氏의歡迎辭가 잇섯고 포-탈監督의答辭가 잇슨다음 食卓에 옮겨서 和氣靄靄한 가운데 同九時에 散會하엿다

米軍監督노審判 判定은嚴正

日米對抗拳鬪는明日



全鮮的으로 人氣와 興味를 끄는 本社와 拳聯共同主催의 日米對抗拳鬪戰은 마침내 明十八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擧行할터인데 記念할大爭覇戰을압두고 兩軍監督의 會談이 잇서 審判에對한 嚴正을 期하는意味에서 米國軍의監督디윗트 포-탈氏도 레퍼리-로 登場케 된바 審判配定은 金明錫對세터스戰은 金正學氏 梁敬模對레-씨-戰은 金明坤氏 韓龍河對카이워戰은 黃乙秀氏 鄭福模對테이러-戰은 全日本아마튜어拳鬪聯盟理事坂口氏 李敎鳳對킹게이드戰은 포-탈監督이各各擔當하기로되엇다 이날來鬪의 先進國서도 優秀한 審判으로 이름노픈 포-탈監督의 嚴正的 示範은 만흔 審判에對한 것이다

冬休를延長

朝會代身晝會

齋洞小學校長 朴勝斗氏 談

금번의 소학교 파동은비는종래에 업시 힘들게 되엇습니다 석탄배급이 예년보다 적고 또생도들의 옷도「스·파」종류일것이므로 생도들이 고생하게되엇는데 이의대책을 저번 소학교장들이모여 협의햇습니다 그대책은겨울방학을 예년보다 십사일간늘러 십이월십팔일부터 시작해서 일월이십오일까지로 하고 또 예년에는 상오시간부터 훈시반으로 하던것을 금년에는 열시반으로하여 아침추위를 피하게한것입니다 그러나 소학교의 방학기간은 규정이 잇서서 느리지못하므로 방금 당국에인가신청을 하엿습니다 인가가나오면 현재 배급되는 석탄으로 예년보다 별반 춥지안케 겨울을 날수잇스리라 밋습니다 열나흘동안 느저지는 공부는 자연 삼학기에 중요하지안은 과목시간을 빼고 중요과목을 너토록할 작정입니다 만은 인가여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대책외에 금년겨울에는 십이월부터 조회(朝會)를 그만두고 점심후에 주회(晝會)를 하겟습니다

交織도약과

莫布木商 談

면모교직(綿毛交織)즉 면직물과 모직물은 지금 과도기의 절정에 잇다 옷감으로서의 순면은 현재업수나 내복과 기성복에는순면으로 만든것이 아직 좀남아잇다 모직물은 면직물보다 순모가 갑으로도 좀 나아잇는데 수요가에게「스화」는 아직송충이처 존재인것가치 느낀다 그러나 금년겨울을 고비로 다음부터는 어쩔수업시「스·파」를 애용하게될것이며 내후년부터는 「이것은 순면입니까」하는 고객의 질문이「이감에는 면이석겻습니까」하고 무르리만치「스·파」직물전하가 되지안흘가 생각한다

保導硏究大會

경기도 보도연맹에서는 매일오전아홉시부터 도제일회의실에서 전조선교외보도연구대회를 열고 조선안에잇는 이런종류의 각단체관계자들이 모이어 아동생도의 보도교호(保導敎護)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여써 교육보국에 노력이 되게할터이다

第十二回中等籠球聯盟戰第六夜

織商(二部)依然全勝

徽新、中東、普成各勝

朝鮮中央基督敎靑年會主催 第十二回中等籠球聯盟戰 第六日은 十六日午後六時卅三分부터 鍾路靑年會館內코-트에서 中等第二部 織商對中央戰을 비롯하여 中等第一部 徽文對徽新、景福對中東 中等第二部 普成對電機의四回戰을 行하엿는데 織商、徽新、中東、普成이 各勝하엿다

織商49(17 32 / 8 4)12中央

◇中等第二部 織商對中央戰은 午後六時卅三分부터 田溶國、金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 織商軍이 四十九對十二로 大勝하엿다(끼임卅分間) 이리하여 織商軍은 三戰三勝의全勝記錄을 남기고 中央軍은 三戰一勝二敗하엿다

反	後	前	【織商】		【中央】	前	後	反
0	0	6	鄭燦模	F	李亨勳	2	0	0
1	4	2	兪元鎬	F	李容仁	0	4	1
0	6	6	金昌鎰					
0	2	8	鄭相龍	C	姜元善	0	2	1
0	1	6	丁昌燮	G	郭海完	0	0	1
0	4	4	韓圭澤	G	閔泰部	2	2	2
0	0	0	金萬在					
1	17	32				4	8	5

徽新38(19 19 / 8 11)19徽文

◇中等第一部 徽文對徽新戰은 午後七時十七分부터 潘洞斗、鄭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 徽新軍이 三十八對十九로 勝捷하엿다 이리하여 徽新軍은 二戰一勝一敗이고 徽文軍은 三戰三敗이다

反	後	前	【徽新】		【徽文】	前	後	反
3	0	0	金致鉉	F	李鉉秀	5	0	0
0	6	2	金希哲	F	兪駿	1	0	1
0	3	6	李潤九	F	安炳顯	0	0	3
2	4	3	金判柏	C	曹重鎭	2	4	0
2	6	6	池錫泰	G	金澤鎭	3	0	0
0	0	2	兪弘濬	G	金永杓	0	4	1
7	19	19				11	8	5

中東34(19 15 / 15 16)31景福

◇中等第一部 景福對中東戰은 午後八時八分부터 李鍾鎬、曹東煥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 中東軍이 三十四對三十一로 勝利하엿다 이로써 中東軍은 三戰二勝一敗하엿고 景福軍은 三戰三敗의 戰績을남기엇다

反	後	前	【景福】		【中東】	前	後	反
3	2	2	李鵬濮	F	韓瑨宇	4	6	1
0	2	0	王圭斗	F	李志淑	2	6	2
4	2	4	金永武					
0	9	4	鄭泓植	C	李永雨	5	4	3
0	0	4	金振英	G	李成勳	1	2	1
				G	李德成	0	0	0
2	0	2	金寶基	G	閔庚洙	3	1	1
9	15	16				15	19	8

普成24(14 10 / 15 4)19電機

◇中等第二部 電機對普成戰은 午後九時五分부터 曹東煥、崔海龍兩氏審判下에 開始된바 結局 普成軍이 廿四對十九로 勝利하엿다 普成軍은 三戰二勝一敗이고 電機軍은 三戰三敗의戰績을 남기엇다

反	後	前	【普成】		【電機】	前	後	反
0	4	3	林信璡	F	金英哲	3	5	2
3	0	0	吳忠根	F	崔勳鵬	0	6	2
0	4	5	崔完衡	C	金潤植	0	0	0
3	2	0	朴亨基	G	李正煥	1	2	0
2	4	2	姜福福	G	李嘉南	0	2	2
8	14	10				4	15	6

化學治淋內服特効劑 コパハリン 코파바린 短期治淋에大成功으로 治療界에驚異的革命的福音이다 京城 大日本製藥株式會社 支店 全州・奉天・北京 ¥3・50 7・00 11・00

百日咳・感冒咳・喘息 チムツール 지무쓰-루 醫藥단! 業界에彈丸的發明 一滴의効力으로數十年 決定된기로!! 五十錢 一圓 二圓

高速度補血强精劑 參茸精 健康의源泉・人類의도약 ¥3・00 5・00

モルヒネ代用品 最强力 鎭痛鎭靜劑 ルーモパパ (注射法) ライオン藥業社 總發賣元 京城府壽松町七四 振替京城一九六五一番 無代進呈 「試供品」 有資格者限

專賣特許 自宅에서되는일 감兒本無代進呈 マルフク

謝恩金百圓贈呈

神經衰弱、頭痛、健腦에는 ロイマチス關節炎、神經痛에는 原因療法을하야 病뿌리를업새야납니다

原因療法으로 第一血液을淸血시키고여러가지毒(梅毒、淋毒、酒毒、煙毒、藥毒、體毒)을 體外로 排泄시키며 五臟六腑를 補하는데 비로소 眞正한治療와 健康을 離得할수잇습니다 在來治療法의缺陷은 單只其局部에만 作用한藥을 使用하여왓스므로 藥을使用하여도 어떤효과가 次發하는 폐단이 만엇섯는데 只今世上사람이 效力을보아 每日가치 感謝狀을 밧는 淸血排毒强壯劑『海草精』은 病의根源을 녹여버리는 힘이 强大하여 누구나 服用하는날로 氣分이 알수잇스며 効力에驚嘆하게됩니다 海草精으로 速히 貴下의 痼疾을 곳치소서 改正藥價는 一個月分四圓九十錢 二個月分九圓三十錢 送料三十六錢 先金注文에는 送料弊所負擔하여 精密히製藥하여 速送합니다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番地 ホルモン醫化學硏究所로 注文하시는분에 仔細한 病理와 治療方法의 冊子를 無料添送 振替京城一二○九八番電話光四○六九番

腸カタルかぜにと

頭髮危期의 脂汗이찌는季節에는 洗髮도過度해서拔毛切毛의障害가이러납니다 キンツル는 養毛油脂와毛生藥코레스테린의滲透性에依해서一切의頭髮障害를除去하고頭髮危機를完全히解消합니다

金鶴ポマード 本舖 株式會社野村商店

この內容 この値段 定價 二十八錢 送料六錢

昭和十五年度 家庭日記

編輯・發行 日本メンソレータム本舖 (振替大阪五四三二四 近江八幡町)

若き人々への編輯內容 感想集十二ケ月 新選詩歌集 世界音樂 世界藝術巡禮 工藝美術 新興生活 歌集と詩集 新文學讀本 新知識集 自然界の話 新美容法 作法の心得 裝飾と服裝 新常識寶典

御註文は本舖へ 定價 二十八錢 送料六錢 御送金は郵券又は振替にて願ます

保育院에棄兒

【開城】 겨울비탈이 거츠른 지나간십일밤 아홉시쯤 부내유린보육원(有隣保育院)문전에는 나흘이 상일밧게 안된 계집아이가 강보에싸힌채 울고잇는것을 발견하고 이보육원에서 마타기르도록되엿다 이아기는 유래시 일흔하다 세상에는 자기가나흔자식을 버리지안흘수업는 냉정한 어미가잇는가하면 불상한고아를 보호하는 인정잇는 기관이잇다한에이 아이를 안심하고 맛기니 부대잘길러 훌륭한인재를 만들어달라는 의미의 편지가들어잇섯다 한다

無慈悲한仁川家主

最低五十錢·最高十圓을引上

一千八百餘名借家申告에나타난現狀

【仁川】 인천부내수태난완화의방침에대해서는 본보에 여러번보도하바와갓거니와 인천서경제계에서는 지난시월일일부터 인천부내에서 세집사리하는 사람들에게 차가신고(借家申告)를통하여 차가신고를 수집중에 잇섯는데 지난십륙일까지 이천삼백여건의 세집사리의 조사에는 회포한가주들의 행실이한거번에버러젓다 이천여명이신고한중에는 일천팔백여명의 가주가 금년칠월부터 금까가비쌋다는구실로 최하오십전 최고십원씩의 집세를올니여 세민생활에막대한 영향을끼치게되엿다 이에동서에서는 이상일내로 전기신고중에 집세를올닌가주를 전부소환하여 작년입원일현재로 나추시인코 고집세우면 오정주의를 일축하고 단연 총동원법세삼실조를발동시켜서 상념이하의중이나 오천원이상의벌금 혹에해당하도록엄벌에처하리라한다 아프로도 이런부당가주가 생길때에는단연 처단을나리도록하리라한다

病身된男便에悲觀

人妻가鐵道自殺

開城寒泉洞鐵路의慘事

【開城】 십삼일 오전다섯시오십오분 개성역을 출발한제이백십이호 남해열차가 부내 한천동(寒泉里)호미끼리를 지날때 나히삼십세가량된 소부가 차속에뛰여드러 두개골을 분쇄시켜 즉사하엿다 그는 부내남산정(南山町)칠백오십삼번지의유호 황창성(黃昌成)의안해 유영순(柳英順)(三一)으로 전기남편은 오래동안 개성서에 순사로 근무하다가 무한한중 작년에 우연히 편절이생겨 써는두다리를 잘러버리게되여 실직파탈게 병신신세가된 그의비관한가정은 항상음울해서 부부간에 풍파가 끈일새업섯는중 마추내 안해영순은귀찬은 삶년사리를 죽엄으로써청산하고 만것이라한다

庾秋岡、申不出兩氏

漫談과野談의밤

汶山三支局主催로

【汶山】 단풍이곱게물들고국화가 만발하여 밝게개인 가을하늘밤은밤에 본사문산지국과 동아 매신각지국에서는 지역여러독자의 열렬한 지지를바더 장족의 발전을보게되엿스므로 그지국에서는 이망영의기뿜과함께 일반독자의 후원을백분지일이라도보답키위하여 만담과야담으로 이름이 전조선에노푼 신불출(申不出)씨와 유추강(庾秋岡)씨를초빙하여 만담과야담의밤을 임진소학교(臨津小學校)에서 십칠일밤에 개최하기로 되바 일반은만히 래청하기를바란다하다

作業中에墜落

이내行方不明

【仁川】 인천부화정(花町)일정목 륙번지에사는 주성칠(朱成七)은 지난십사일 오전아홉시경에 인천월미도 해안등대(燈臺)에서 남해상일천오백메틀의 장소에서 기선제일대정환(第一大正丸)에서 석탄적재작업중에 실족추락되어 행방을 알수업다는바 때마침 북풍이강하여 파도가세어서 어데로떠나려갓는지알수업서서 인천서에서는 각처로 수배중이다

結核豫防國民運動

長湍郡서도令旨傳達式

【長湍】 지난십삼일부터 오일간 전국일제히 실시한 영지봉체결핵예방 국민운동제이일에 장단군에서는 십오일 오전十시부터 군회의실에서 각면장 각학교장 청원경렬하에 영지전달식을 거행하엿는데 먼저 궁성요배 전몰장병에게 일분간묵도를 들리고 서군수의영지전달과 훈화가 잇슨후 선서랑독 황국신민서사 제송 성수만세삼창으로 식을맛치엇다

開城籠中鳥에

警察의따듯한손

收養制度를徹底肅淸

【開城】 빈한하고 무지몽매한농촌부모네들을 속혀서 이삼십원의 금품을주고는 수양딸을 만든다는 미명아래 소녀들을 꼬여사다가 이삼년양육해 가지고는 소위예창기 작부영업 계약서를 작성해서 수백원또는 수천원의 차용금을 지게해가면서 기생아니면 작부유곽창기등을맨드러 영리유괴를일삼어오든 포주제도를 철저적으로 박멸시키는동시에 일생을 포주의 밥이되여 지내는 불상한 수양녀들을구출코저 일즉이 개성서에서는 두달동안이나 화류계를전반적으로 대수술하여 오십여명의 수양녀를 자유의몸이되게 해방시켜주엇고 포주들을 소환하여 수양계약을 전부해제시켜버렷다 함은 긔보한바이다 즉이가치 기구한운명에 허매이든 농촌소녀들은 전부 자유의몸이될기회를 주엇던 것이나 원체세상물정에 눈이어둡고 또는어린때부터 눌님을밧고지내든이들중에는 포주의가진위협과매질이무서워 수양집에 아직까지도말못하고잡혀 지내든기생들이만타고한다 말하자면 이들은사람이주는 모이가 아니고는세상밧게나가면 모이를구해먹고살수업는듯이 생각하는 어리석은조롱속에 새와가튼 기생들인데 요즘이사실을 내탐한 개성서에서는 이들을전부소환하여 자영업의 유리한점을 조용하는동시에 수양계약을 해제하고도의업히 포주노릇을하는 기부들을호출하여 엄중설유해서돌려보냇다

假齒醫師逮捕

仁川署에서嚴調

【仁川】 인천부송현정(松峴町)달십팔번지에 현주소를둔 한흥준(韓興俊)은 부내각처로 다니며 가정부인들에게 감언이설로 이자를차게맛는다고 속여서는 오원내지 칠팔원씩의 사기를한사실이 인천서원에게 알니게되어 지난십오일 오후두시경에는 인천서원이 전기주소에서 한을 체포하여 목하엄중취조중이다

陽東 陽西 高村에서

暴騰하는土地價

헛배만불른金浦郡民

【金浦】 김포군양동(陽東) 양서(陽西)고촌(高村)삼개면은 대경성확장구역으로 편입되엿다는구실로 그로지가격은 천정을모르고날로 뛰여올라가는 형세인데 그위치에따라서 수목도 별로업는 산한평에 오륙원까지가는곳도잇다한다 한참동안은 전기삼개면으로 뿌로커들이 집중하던바 요사히는 검단면왕길, 마전, 금곡리(黔丹面, 旺吉, 麻田, 金谷里)김포면장기리(金浦面場基里)양촌면학운리(陽村面鶴雲里)등지로 토지매매가 격증하여금년봄에 산한평에 이십전에불과하던것이 근자에와서는 오륙십전의 폭등시세를보이고잇다 이와가치 토지까의 폭등된원인은 검단면왕길리에서부터 김포면장기리로관하가된다는 구실과 또한가지는 양촌면양곡, 인천간신작로가 실현되는판게인뜻 하다 운하의실현은 어제될는지 그는 악수업스나 양곡인천간도 도로완성은 불원간에 실현될것이라하여 그근부근에잇는 토지가격은 날로뛰여올라가는 형세이라한다

京畿中學에서最初로

教育展示會開催

十九日午前九時부터

경기공립중학교(京畿中學)에서는 지난시월 학부형간담회의뒤를이어 오는십구일(일요일)오전아홉시부터 오후네시까지 제일회교육전시회(教育展示會)를열고 그학교교육의개황을 학부형에게 보여주기로되엿는데 이로써 일반학부형들은 자기자제가 날마다 학교에가서 어떠한훈련을밧고잇는가를 공부수잇스리라하며 그날행사의요항은 다음과갓다하며 만일 비가오는때에는 다음날로 연기한다

◇午前部

一、朝會(九、一〇—九、二〇)

二、授業 第一時間限(九、三〇—一〇、一五)(各教室에서)

第二時間限(一〇、三〇—一一、一五)(各教室에서)

전학교에 걸처서 수신 국어 한문수학 역사 지리 영어, 리과, 실업 채조 검도등의수업

三、集團體操(一一、三〇—一二、〇〇)

午後部

食(一二、〇〇—〇、四五)

교정에서 전생도가 건국체조 일본체조를합

四、分列行進(〇、五〇—一、二〇)

五、戰鬪教練(一、二〇—一、三〇)

六、學藝會(一、五〇—二、四〇)

七、懇談(二、〇〇—四、〇〇)

각교실에서 학급담임과 학부형들이모혀서 생도교유상에 관한간담을한다 그리고 경기중학에서는 이번에 약사천오백원의 경비로 그학교안에 영화(映畫)설비를하고 교육상유익한 영화는 매월한회또는 두회식 그학교생도에게 관람케하여 시내영화관에는 출입을 엄금하고 관람은 언제든지 무료이며 그비용의일부분은 각생도로부터 일원식을 증수하기로하엿다한다

防犯十則頒布

仁川署에서協力要求

【仁川】 인천서에서는 연말도아프로닥쳐오고잇스므로연말경계의준비를미리부터 세우고잇는데 금년은 각지의한해로말미아마 절도사건의 건수가격증할터이므로 형사들은 눈코를뜰사이가업슬것으로 이것이 연말경계에 복잡하다고 연말경계를 하기전에부민에대하여 방범(防犯)경고를하여 부민으로하여금 서로히 방범에대한 인식을가지게되도록 방범십측(十則)의 인쇄물을배부하리라한다 이에작년의 입건서류를보면 일년간에 건수를조사한바에의하면 일천칠백사십사건으로 그중 강도사건이육건이나된다 그런데 그금액의피해액이 륙천오만구천륙백원으로 전년에 보지못하던 통계를보엿다는바 검사법주임은 다음과가치 말한다

金司法主任談 작년도에범죄수나 피해액수는 놀날만큼부려습니다 이에관련은각지의한해로말미아마 도범건수가 늘것으로 역이고 벌서부터서 위에게 각기주의를 시키는동시인데 금년은 될수잇는대로민간측의 협력을취하여야 관민일치로써 민간의 협력을 바라는 바이다 운운

一匙飯米節約

旱害에義捐

進興學院兒童의篤行

【永登浦】 부내영등포정에잇는사립진흥학원(進興學院)에서는국민정신작흥주간중 행사의 하나인 절미실행일(節米實行日)을당하여 생도직원일동이 반미(飯米)한숫가락식을모아 판돈집원이십륙전을 십오일 본사영등포지국을 통하여 한해의연금(旱害義捐金)으로 보내주기를기탁해와다

蹴球 全國制覇記念座談會 ④

陣容强化에邁進

『코―취』問題도解決토록

그러면 금후의 포부와 계획을간단히 이야기하여주시오

李(成) 감독께서 이야기하엿스면 조켓습니다

洪(德) 작년에 세지방대항에이겻슬때에 다른지방 사람들이 너이들 각지선수들을 모아노앗스니 그것이 이년이나가는가보아라고 하던데 우리들은 이비웃슴을 물리치고 더욱튼튼한 단체를 가지고잇스니금후도 더욱선수들의 단결에힘을써야 할것입니다

李(成) 우리의 포부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축구조선을총하여야한다 둘재로는 축구를통하여 조선청년을 지도하겟다는것 두가지입니다 즉잇까지 축구로서 조선의 이름을 날리며 축구로서 씩씩한 조선사회를 건설하여야겟다는것이 원대한포부입니다

朱(洛) 좀더 구체적한것을!

李(成) 선수도 조금더 충실히하여야겟습니다 정신에 어기면 랄퇴시키고 그진용을 튼튼히하여야 하겟습니다 적어도 전문학교이상출신으로서질을놉히며 축구로서 조흔선수들로 더 적으로보아 조흔선수들로 더보강(補强)하엿스면 조켓습니다

尹(大) 선수는 적어도 이십명이나잇서야 하겟습니다 이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李(洛) 건설된 함흥팀에는 기끼고잇서도 구하기어렵습니다

洪(德) 코―취가 절대필요합니다 주장한사람으로서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洪(法) 그런 코―취는 꼭수준이 노파야 하겟스니 필요는드

李(浴) 일본내지를 갓슬때에도 가는곳마다 코―취가잇느냐고 뭇습디다 즉이런 기술을 배양하기까지의 코―취를 못습디다

李(成) 정신적코―취는 잇시만은기술적 코―취가업습니다 그러나 그런코―취를 구하기는어려우니 부득이 현역을물러서게하여서 코―취를할수밧게업고 그전까지는 선수들의종합적 코취를하여야 하겟습니다 당분간이라도

韓(村) 제생각으로는 함흥축구단이 이만큼한 위대한 립으로되기까지 코―취가 업섯다는것은 선수자신들이 그만큼간격이업는 동안에 완서되잇조의힘이니 그만큼 공고한것이어디잇겟서요 이것이 함흥축구단의 전통이라고생각합니다

李(成) 전법에잇서서는 지금까지의것은 소화도시켯고 또신전법을 맨들어낼수도 잇섯습니다 단지 상대팀과의 대전 작전에잇서서는 선수들이 정하게되어서 작전을 세울수업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배종호(裵宗鎬)씨가 사람이 상대팀을 잘알고잇는 관계로 그코취를바더서 유리햇습니다

洪(德) 이번 『팟스』전법을쓴것과 가는것도 경주군의 전법을 잘알고잇던판게입니다

李(成) 조선에서는 그코―취를 구하기어려워……

金(喜) 계림중에 포시순을 바꾸는것과가든것은 외부에서 보아야 하지안켓습니까 코―취는 매우필요합니다

李(成) 어쩌든 금후 전함흥의총력을모아서 함흥단의구성장을 하든수바께업습니다

(韓村) 이야기를 잘들엇습니다

(文泰) 시간도 느젓스니 이만하고 끄치는것이 어떨가요

(韓村) 오래시간에 매우 피곤하엿슬터인데 매우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좌담회는 폐회합니다 (끗)

出席者 文泰洙(監督)李成周(部長)洪得洙(主任) 安明俊(마네저)尹大爵(幹部)李裕榮(主將CH)韓洛秩(選手LH)李秀林(選手RW)金喜守(選手LW)朴明稷(選手RH)玉貞彬(選手LB)吳正寶(選手RB)姜道熙(選手RI)李德鍾(幹部)

本社側… 韓林(咸南支社長)朱洛奭(特派員)

警防團의新設費

一萬九千餘圓을承認

開城臨時府會議에서

【開城】 지난십삼일 오전열시개성부 회의실에서는 송부윤의사회하에임시부회를 소집하고 금년도일반경제 세입출추가예산결정에대한심의가 잇섯는데 그내용인즉 지난시월일일에 새로조직된 개성경방단(警防團)유지에 대한 금년경비예산인 기부금일만구천사백여원에대한 승인의건이엿던바 한능이의업시 일반의원의 만장일치로가결되엿다 그런데 제일제이양경방분단에서금년 반개년내에소요경비는 일만천유백사원으로 그내역의대강을 소개하면다음과갓다

▲雜給 八千二百七十三圓 ▲訓練費 六百圓 ▲備用費 三千八百十一圓 ▲資材費 一千七百圓 ▲修繕費 百圓 ▲雜費 二千二十圓 ▲計 一萬六千六百四圓也

京師와附屬小學

時局學藝會開催

경성사범학교에서는 오는십팔일(토요일)정오부터 오후네시까지 그학교강당에서 사범학교생도와 부속소학교아동의 제십륙회시국학예회(時局學藝會)를 열기로하엿는데 그학교의부형은물론 일반관계자들의 다수참석을 바란다 한다

社告

今般本社에서 左記와如히 支局을設置하엿사오니 照諒하시압

順德支局 位置 北支順德府南關花市街

朝鮮日報社 白

昭和十四年十一月九日 支局長 金炳鍊 右新任

金海支局 位置 金海郡邑內 昭和十四年十一月六日 支局長 申孝弼 右新任 支局長 柳○烈 右解任

杆城支局 位置 東海北部線杆城驛前 昭和十四年十一月六日 支局長 鄭日順 右新任 支局長 金○俊 右解任

長津邑支局 位置 咸南長津郡邑內 昭和十四年十一月十一日 支局長 安鳳赫 右新任

謹告

扶餘支局 總務兼記者 李周院 右新任 扶餘支局 白

鴻山支局 記者 盧承朝 右新任 鴻山支局 白

龍台分局 記者 李洙根 右新任 龍台分局 白

善山支局 總務兼記者 李○穆 右新任 善山支局 白

(以下는廣告)

海州醫藥界紹介

醫療紹介版發行에際하여

黃海支社 一記者

海州府의醫療의機相은 날로새로워저서 商業의殷盛과 工業의 勃興으로 現代的商工業都市의 面貌를 보이고잇스며 따라서 人口의急增에 數年來의 醫療施設를 使用하고 이에隨伴하는 大工業의 勃出하는 海州에서는 時局醫療機關의擴充을 緊急要求하는바이다 現在海州府의 醫療施設의 狀況을보면 開業病院의 數가公私立을合하여 十五個所에 醫師數가二十名이니 五萬府民에 對한比率은 三千三百餘名에 醫師一名이며 病院一個所의 比이 一千六百六十餘名이니 現代都市의 醫療機關으로서는 不足한感이 업지아니하다 그러나一面 東洋傳來의漢方醫藥의 狀況을 살펴보면 西洋醫藥의 程度도 發達됨에따라서 一時는東洋醫藥의 退嬰의氣勢를 보이고잇섯스나 近者에와서는 今日西洋醫藥의 極致도 그根源을探求하면 傳來의 東洋醫藥에서 나온것이만허 東洋人의醫療에는 亦是東洋醫藥도 必要하다는것을 認識하게되어 漢方醫術의 復活振興하는現象은 醫療機關이不足한 우리社會에잇서서는 慶賀하는바이며 海州의漢方醫藥은 在來로 他地方에比하여 마니發展되어서 一般社會의 醫療機關의 一部門을 確保하고잇스므로 漢藥界의名醫가 輩出하여 商工業이 豫日隆盛하는 都市生活者에게 큰 福音이다

本支社에서는 海州將來의醫療發展을 祝賀하는同時에 醫療機關의擴充을 期待하는意味에서 本紹介版을 發行하여 物質的援助와 精神的後援을 아끼지아니한 諸位에게 深謝하는바이다

海州救世療養院

貢獻만흔院長賀樂氏

賀樂氏는 米國人으로 氏의父親이 지금으로부터 四十八年前에 平壤에와서 宣教事業에 從事하엿는데 其後四十三年에 平壤에서 出生하엿스나 學齡이되매 本國에가서 三十歲까지 本國에잇스면서 醫學을專門修業하고 其中에도 呼吸器病에對한 病理學을 만히硏究하며 大正十三年에 平壤으로다시와서 父親이設立經營하던 基督病院主任醫師로잇섯다 이보다前에 氏의父親은 氏가어렷슬때에 逝去하고 氏의母親이 亦是醫師이엇스므로 父母가 共同經營하던事業을 母親혼자서 繼續하게되엿는데 氏의母親은 平壤、京城에걸치어서 平壤의基督病院을 爲하여 光成學校와 光海醫院이며 京城의東大門病院을 設立하는等 實로朝鮮文化事業에 至大한貢獻을하엿다 氏는其後大正十四年에 平壤에서 海州로와서 救世病院을 引繼經營하면서 本療養院設立에 努力하엿는데 海州의位置가 海岸地帶이어서 氣候가溫和하고 地形이안온하여 結核療養地로 最適合하다하여 結核療養所를 建設計劃하여 基督教朝鮮監理會의 承諾을어더서 昭和三年三月에 同會의 慈善事業機關으로 結核療養院의 設立을보게되엿다 現在에는 院舍의建築物이 宏壯하고 醫療機具의設備가完全하여서 病棟數가十餘棟이고 七十餘名의患者를收容할수잇스며 農場 牧場 販賣店 花園等의附屬事業이 充實하고 職員의宿舍며 敎會堂이 靑松이욱어진松林間에 點在하여 別天地의醫療村을 만들고잇다 氏의今後의抱負와理想을들으면 現在의 救世病院으로하여금 將次醫療機關을 만들고심흐며 療養院에對하여는 經營의許諾하는程度에잇서서 設備를더욱 擴充하고入院患者로하여금 費用의輕減되도록 經營方針을改善하려고 考慮中이라는데氏의 事業에對한 獻身的努力과誠意에對하여 一般社會에서 致賀하는바가크다 (寫眞은 賀樂氏)

漢方醫界의權威

署龍藥局 趙容璧氏

氏는忠淸南道大田出生으로 本來名門大家의 後裔로서 漢學의 修養이깁고 따라서漢方醫術을專修練磨한바잇서 漢方藥材의妙方이 許多뿐아니라 鍼術療法의神技를兼備하여 漢方醫術界의 權威者이다 氏는漢方醫術에對한造詣가깁흘뿐아니라 性質이溫厚剛直하여 正道에充實하고 邪惡에 超越하여서 賢人君子의風이 잇스므로 一般의敬慕하는바이며 藥局의設備와 藥材의具備는 實로 藥局界의首位라 할수잇고 鍼術의妙技는 一般患者의 信賴하는 바이여서 善心施藥이 날로새로워지며 氏의博愛主義에依하여 無料施術한患者가 不知其數라 (寫眞은 趙容璧氏)

朝日病院長

裵秉斗氏

氏는 本來海州出生으로 大正十三年에 京城醫學專門學校를卒業하고 錦衣還鄉하여 黃海道立醫院에서 眼科 耳鼻咽喉科科長으로 多年間 臨床技術을 鍊磨한後 昭和五年에 府內南本町에 單獨開業을 始作하여 以來十年에 相當한 蓄財를하고 近年에와서 海州一의 近代式三層洋屋을建築하여 諸設備를充分히하고數十名의入院患者를收容治療하게되어 海州唯一의 醫療機關이 되어잇다 氏는性情이 柔順圓滿하고 頭腦가 明晳하여서他人의 非難을 밧는일이업고 每事를 處理하는데 遺憾이업는 世事에 能熟한편이다 最近에 一般社會의 信望이 노파서 府會議員의 當選을 獲得하엿스며今後 海州社會에 잇서서 醫療機關으로서는 勿論이고 其他모든 方面에對한 氏의敏腕한 手腕에 期待되는바가 만타

更生堂漢藥局

柳應乾氏

氏는信川郡草里面出生으로 今

하여서 一分不足이 업스므로一般漢藥使用家로서는 更生堂을내어노코는 他處에 이것을 求할수업을만치 社會의 要求이 되고 將來의 藥局發展이 더욱더욱期待되는바이다

(寫眞은 更生堂全景)

保健堂漢藥局

李泰化氏

氏는本來海州出生으로 少時에 年三十六歲의 前途洋洋한 少壯漢方醫이다 少年時代에 漢學을 專攻하엿고 二十歲前부터 漢方醫學에 造詣가 기퍼서 將來漢方醫藥으로써 濟度蒼生할 遠大한抱負와 理想을가지고 有名한洞永眞先生의 弟子가되어서 文 漢學을專修하엿고 二十壯年에漢方醫術에 留意하여 漢方醫學의研究三昧로 十年間을繼續하는동안에 當時의漢方醫의大家朴成可氏의門下에 實地經驗을 쌋하가지고 滿洲國哈爾濱에서 芙蓉堂漢藥局을開設하고 支那人鍼仲坤의指導로 多年間開業中漢方醫術의練磨와 唐材使用의妙方을實地研究한後 昭和十一年에 朝鮮에 도라와서 海州南本町에 保健堂漢藥局을開設하고 藥材收買를始作하엿는데 氏의 博識과豐富한 經驗에는 一般社會가 驚嘆하는바이며 藥材의精選과 藥種의具備는勿論 海州唯一의 藥局이며 氏의 內治에對한 用藥妙方은 神奇하여서 海州漢藥界의第一人者이다 (寫眞은 李泰化氏)

潤達明朗한名醫

中央醫院長 金潤玉氏

氏는本來海州出生으로 大正十五年에 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錦衣還鄉하여 道立醫院 眼科醫長으로 五年間을 勤務하여 醫術의練磨를 쌋코後에 昭和三年에 南本町中央地點에 院舍를 新建築하고 開業을始作하엿는데 氏의性品은 明朗寬厚하여 即事即決主義로 患者에게 親切하고 氏는 學校當時부터 庭球나蹴球에 잇서서 全朝鮮的 選手이엿고 道立醫院勤務當時에는 海州의模範的庭球選手이엿다 氏는元氣旺盛한 活動家로서 潤達明朗한氣質이 一般患者에게 好感을주며 氏의 本情인 博愛主義로 貧寒한患者에게 對한 施療를 잇지아니하므로 府民의 稱頌이 놉고 氏의將來를 祝福하여마지아니한다 (寫眞은 金潤玉氏)

仁術을그대로實踐

濟蒼醫院長 宋英埈氏

氏는 本來海州出生으로 昭和五年에 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一年間을 同校附屬病院에서 特히産科에對한 醫術을練磨한後 錦衣還鄉하여 府內南本町에 院舍를改築하고 醫業을開始하엿는데 氏의 性情은溫厚寬大하여 凡事에理解性이 豐富하고 沈思默行의 模範人物로서『無言은金이라』는 西洋俗言과 가치 自己의 아는바를 자랑치아니하고 사람의잘못을 탓하지아니하며 醫療에잇서서도 利害를돌보지아니하고『醫는仁術』이라는 古語를 그대로實踐하여 貧富와 貴賤을 가리지아니하고 施術에 忠實하다 그러므로 氏는開業以來로 治療患者에게對한 未收帳簿가업다한다 醫術以外에 手藝에特出한 才調가잇고 趣味로서는 在來朝鮮音樂에 잇서서는天才的逸話를 가지고잇서 在學當時에는 學業에 專心하여 寸暇가잇스메도 不拘하고 放送局에서 마저오는 自動車를타고『단소』吹込을하려다니엿다는逸話도 잇는 熟達한音律家이다

平和醫院長

文昌模氏

氏는昭和六年에 京城世醫專을 卒業하고 京城帝國大學醫學部에서 耳鼻咽喉科副手로잇스면서臨床技術을 專攻한後 海州救世病院、平壤基督病院、黃海道開業醫로 多年勤務하다가 今年八月一日부터 以前池泰汝氏가 經營하던 醫院建物을 引繼하여新設備를 完全히하고 開業을始作하엿는데 氏는 溫厚篤實한 者다 氏의抱負를 들어보면 배운바 醫術을利用하여서 肉體의 病苦患者를 慰安하고治療하여주는同時에 精神的으로 基督精神의 感化를 주어서 世上사람으로하여금 救的和平을주고 醫業과救援의 길을指導하기에 努力하겟다한다 如斯한信念下에 醫療機關을 開設한 것은 海州社會의 한異彩이며今後 新新한 醫療技術로써 世人의 病苦를退治하고 宗敎信念으로써 世人의心田을 啓蒙하는데 一般府民의 氏에게對한期望이 크다

患者信賴가滿點

海東醫院長 丁海鵬氏

氏는 本來延白郡白川出生으로 大正十五年에 京城醫學專門學校를 卒業하고 同校附屬病院에서 多年間臨床醫術의 練磨를싸흔後 京畿道立醫院을 비롯하여各地의 公醫에 歷任하고 昭和五年에 黃海道立醫院眼科科長으로 勤務하다가 道衛生課細菌檢査室 主任醫師로 勤務하면서 道內의 傳染病豫防이며 學校生徒의寄生虫驅除에 專心努力하여 黃海道의 健康增進에 對하여는 氏의 貢獻이 적지아니하다 昭和十年에 公職을 辭免하고 府內南本町에서 公醫兼任開業을 始作하엿는데 氏의 性品은 氏의美貌와 가치 溫和端正하여 興人接待에 柔順하고 從容하며 施術에 沈着하고 敏活하여 一般患者의信賴가노파서 開業以後 年月이만치아니할지라도 今後의開業發展이크게 期待된다 (寫眞은丁海鵬氏)

海一藥局

姜信英氏

氏는本來海州出生으로 多年間 漢方醫術과鍼術法을 專攻研究하여 延白郡白川에서漢藥種商과鍼術治療를開業한以後로 一般의評判이노팟스며 恒常慈愛寬厚하여 貧寒한患者에게는 利害를생각지아니하고 無料施術도 만히하엿스며 海州에移轉開業以後로도 一個月間을 氏의秘方이라할만한鍼術療法에對한 無料施術을하고漢藥種을求하는사람에게는 實費提供하기로하여 一般의稱頌이노프며 氏의腰痛治療에對한鍼術法은 神技라하여 널리宣傳되고잇다 (寫眞은 姜信英氏)

九代繼承名醫

百中醫院長 吳政柱氏

氏는 本來平南价川郡出生으로 當年六十歲의 老醫醫生이다 氏는九代를繼承하여 漢方醫術의名士인데 醫不三世어든 不服其藥이라는 聖賢의말과 가치 九代醫業도 今世에稀貴한일이오 九代를繼承한氏의醫術은 實로神技라 아니할수업다 氏는漢學文에精通할뿐아니라 現代文物에도 無不通知로서 一般의 雅客이 非凡하고 氏의鷹揚한 風采와 明敏한頭腦는 藥劑에 不屈치아니하고 크게 歡迎하는바가되어잇스며 現在는 海州醫生界의 師表로서 全朝鮮醫生界의 長이오 東洋醫藥協會의理事이고 京城三角町漢藥業中學校期成會長이며 氏의將來事業에對한理想은東洋傳來의漢方醫術을 繼續發展시키기爲하여 現在有名無實의 東洋醫藥協會에서 脫退하여 一百東洋醫藥業者로 東洋醫藥株式會社를 設立하고 漢方醫藥의 敎育機關이며 藥材收買의統制等을하려고 目下準備中이니 不遠한將來에 이것의實現을볼것이다 氏는老年인데도不拘하고 이와가튼 醫藥의 大規模의 計劃을 遂行하여 一般社會에서는 期待하여 마지아니하는바가크다 (寫眞은 吳政柱氏)

普濟堂藥局

李康瀧氏

氏는 本來海州出生으로 家業인 傳來의 漢方醫術에對하여 研究와研鑽하여 東洋漢醫術에 對한 將來發展을目的하고 多方面의 藥材와妙方을 研究하여서 醫理를研究精通하는同時에 藥材收買를擴張하며 藥效를專心宣傳하여 一般社會의 漢藥에對한認識을鼓吹하는중이다 氏는漢方醫術에能熟할뿐아니라 研究이 旺盛하고 手腕이敏活하여 藥業의 進展에邁進하기에서 將來漢藥業界에잇서서 만히期待되는바가잇다

海州府東榮町 日新醫院 院長 朴聲行 電話五二八

海州救世病院 院長 賀樂 醫師 金鍾則 醫師 李國柱 電話三二番

海州府東榮町一八 黃海證券社 電話五〇番

海州府海風町 漢春局 吳厚英

海州府北旭町四二五 劉琮鉉 電話四二四番

海州府本町一八九 岩澤治義

海州府北幸町 劉壎榮

海州府南本町 李再善醫院 電話一二九番

海州府南本町 至誠齒科醫院 金館衡

海州府南本町二〇四ノ一 百草堂藥局

家屋改築 客室完備 親切叮嚀 碧城旅館 主 鄭玉女 海州府南本町一七七番地 電話四五四番

海州府北旭町三九九ノ一 產婦人科 小兒科 花柳病科 國一醫院 醫師 李鍾國 電話三一二

土木建築 設計請負 測量一般 海州府北旭町 三和建設社 電話五三番

院長外科 醫博 金衡翼 / 產婦人科 醫師 金衡雨 / 內小兒科 醫師 金仁性 / 眼耳鼻科 醫師 金熙昇 / 醫師 康炳動 / 港分院 醫師 李道淵 / 新院分院 醫師 金興烈 ……(附屬事業)…… 看護婦講習所 月刊厚生醫界 各科綜合 金海州病院 電話四〇〇 五五三

長篇小說

사랑의 水族館 【84】

金南天 作 鄭玄雄 畵

廻轉木馬 (四)

하녀는 땅호의 잔에 가득히 술을 다시 따랏다.

그러나 부인은 처음 따라노흔 술잔도 들지안코 가만히 자리애서 일어낫다 그리고는 상에서 저만큼 뒤쪽으로 물러서더니『베르펫드』의 두루마기를 버섯다.

하녀가 바다 읽걸려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그는 손수 뒷목에 두겨 노흔 방석우에 그것을 개켜 노핫다.

옥색치마에 힌 저고리 얄마치 살이 부튼 고흔 목매를 정면으로 보엿슬때 눈人결처럼 힌 약단 저고리에 금백이 자주고름이 눈 부시게 차란하다.

장식품이 빗나는 손꼬락으로 압섭을 약간 누르듯이 하면서 외씨가튼 버선우에 치렁 치렁한 치마를 여미면서 그는 방석우에 올라 안잣다.

『참말 기생을 하나 불러 드리리까? 나가는걸 마수 보면서야 술맛이 나겟소.』

그리고는 하녀를 향하여 기생을 지시할려는 자세를 취하여서 땅호는

『아니올시다. 기생은 일 없습니다. 실습니다.』

하고 사양한뒤

『술도 먹을줄 모르고 술맛도 잃고 마시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을 그만 두시고 밥을 주십시오!』

하엿다.

부인은 땅호의 말을 미소와 함께 듯고 나더니

『그러잔허도 양천하신줄은 알고 잇서요. 그래두 영감한테서 공사장에 다니니까 술은 잘 하십께라고, 한번 코오로 바를 갈도록 취하게 하시라는 부탁인걸요.』

『그럴리가 잇습니까.』

하고 땅호는 열심히 사양하다

『그럼 기생만은 그만두기로 내 양보하지요. 그러니까 술만은 사양안코 바드서야 합니다.』

그리고는 저도 잔을 들엇다. 땅호가 입으로 가저 가는것을 보고야 부인도 술을 마서 버렷다.

『술이 강이 덜 됏서!』

그리곤 하녀를 향하여

『술을 다음 부터 따끈히 데워?』

하고 라일렀다.

『네.』

하고 하녀가 고개를 수그리는 우에서

『그럼내, 따뜻게 다음 술을가저와!』

하고 쪼차 내 보내다.

하녀가 나간뒤엔 손수 술병을 들엇다. 제잔에 한잔을 따르고 나뒤 그는 땅호의 아프로 병머리를 돌린다.

『저는 그러케 만히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요!』

하고 사과하듯 하는것을

『어서 취기가 돌도록만 잡수어 보서요. 만히 하는지 못하는지 보면은 몰라요 체질에 안 마즈시는이는 첫산에 눈갑이 끼고 줄이 흘르고 숨이 가뻐지고 하잔허요.』

땅호는 손으로 눈을 부비어보듯 햇스나

『여녀마서요 술이 아마 체질파는 지내치게 마즈시는모양이니까……』

하고 간드러지게 우섯다. 오래동안 술맛을 듣고 잇게하는것도 미안해서 땅호는 두손으로 잔을 웅하여 들엇다.

『그러케 흉내장 받드이 안해도 됩니다. 한손으로 척 기울잇게 내밀어 보서요!』

땅호는 어떠케해야 조흘지 몰랏다. 그러다고 한잔을 때고의 손으로만 술을 바둘만한 용기는 한두잔의 알콜로 가지곤 소사나지 안핫다.

그대로 가만히 잇스려니 병으로부터 노리끄럼한 정한 액체가 소르르 흘러 나려서 그 의잔에 가득히 찻다.

『마시고 그잔을 하나 주서요 나도 봇는 술 한잔 마서보게……』

부득이 땅호는 부인의 요구에 따라가지 안흘수는 업섯다.

잔을 마시고 그것을 부인에게 올리려고 물에다 싯으려하니까

『그대로 주서요. 싯으면 잔이 차가워요!』

하고 빼앗드시 잔을 가저 갓다. 병을 바더서 두손으로 땅호는 술을따랏다. 만족히 술을 바다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고 땅호에게 눈으로 우서보이더니 그것을 조용히 마서버렷다. 마시고 나뒤엔

『어더러 정말기지……』

하곤 흥흥흥 소리를 내어 우섯다.

잔은 다시 땅호에게로 돌아왓다.

이리하여 안수도 들새어시 그들의 체내에는 목에 흥분을 일우킬수 잇슬만한 알콜이 흘러들엇다.

하녀가 새술을 들고 와서따르는것을 제각기 아무런 사양도 투정도 부리지 안흐면서 적당히 바다를 마섯다.

밧안은 전기난로와 화로와 그리고 체온으로 하여 훈끈훈끈 하리만큼 더워 왓다. 박근 벌써 완전히 캄캄한 밤이엇다.

平壤난리

申鼎言 ⑨

老將軍雲中露體 (五)

김유신장군이 잠시 권도로써 풍수촌의 무서운 어름길을 버서낫다.

풍수촌을 지낸 압길은 빙설이 채이지아니한 조혼 길이엇다.

김유신장군은 더욱 행군을 재촉하여 달려가게하엿다.

그것은 풍수촌에서 허비한 시간을 보충하려는것이엇다.

김유신장군은 일시 권도로써 풍수촌을 버서난것은 다행하나 선발대의 안부가 궁금하엿다.

그런데 선천、술천이 처음 고구려군에게 차이게될때 얼는 고구려군에게는 병서(兵書)에 일은바 십사변(十四變)의 형세가 잇슴을 눈치챗다.

그 십사변이라하는것은 대오문란(隊伍紊亂)인마기아(人馬飢餓)천후불순(天候不順)지리불편(地理不便)사졸분주(士卒奔走)사기태만(士氣怠慢)장졸피로(將卒疲勞)사졸반목(士卒反目)장로진섭(長路進涉)병마도강(兵馬渡江)무가무휴(無暇無休)진지험난(陣地險難)군령문란(軍令紊亂)전의검약(戰意怯弱)등이다.

병서에 이것을 십사변(十四變)이라하고 그중에 한가지의 변고만 생길지라도 패하기 쉬웁다하엿다.

그런데 고구려군은 칠중하와 산양에 복병이 되여잇슨뒤 첫재 그 시기가 엄동이요 둘재 매복한 지역이 지극히 협소한곳으로서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를 엇지못하엿다.

그래서 고구려의 인마(人馬)는 침식이 모두 불편하야 지극히 피로하게되매 부지중에 사기가 해이하고 군률이 문란해젓스며 특히 차우기에 접을 내게된 여러가지 정상이 은연히 그십사변에 빠저 허덕어리게 되엿다.

그러치 선천과 술천이 고구려군에게 십사변이 몰려잇는 줄 알어채이고 그러케 차이게 되엿스나 몰이여 용기를 내여 고구려진중에 뛰여들어 먼저 중앙각(中央角)을 끈흔뒤、동서양각(東西兩角)의 련락을 막고질전법(疾戰法)으로써 용맹스럽게 첫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무궁신진세를 만회할길이업서 필경은 도망하여 진을 리현(梨峴)으로 옴기여첫다.

리현은 산이놉고 수풀이 깽천한 지극히 험한 사이다. 고구려군이 리현에 옴으뒤에 진세를 정돈하고 신라군을 리현만은 넘기지 아키렴 크게 결심하엿다. 고구려군의 이 결심은 리현을 떠나 한거름이라도 더 나가지아니하려는큰결심이다.

그래서 고구려군은 궁노수(弓弩手)이외의 군사도 모두 활을가지고 리현의 전면에 장사진(長蛇陣)의 진세를 벌리어 고개를 넘는길을 향하여 치게하엿다.

그것은 험한 산우으로부터 산아래에서 올으는 적을 치는데 적당한 전술이엇다.

성천과 술천은 최후의 용맹까지 다하여 고구려군을 칠중하와 산양에서 물리친뒤 즉시 전령군을 김유신장군에게 보내여 칠중하와 산양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친것과 고구려군이 리현으로 퇴각한것을 자서히 보고하엿다.

김유신장군은 그 승첩서(勝捷書)를 보고 크게 기뻐하여 행진을 잠간 멈치고 급히 군령을 써서 추군장 양도 마저 그 전령군과 함께 빨리 떠내니 보내엿다.

김유신장군이 그 군령서에 익력스되

『리현은 극히 험한 고개다. 그러므로 그 고개를 웅거한 적을 칠에는 오운산병법(烏雲山兵法)과 화공법(火攻法)을 쓰는이외에 다른적당한 전술이 업다. 각별히 힘쓸지어다.』

하엿다. 성천과 술천은 그군령서를 보고 입붐부대가 오기를 기다려 양군을 합진군을 다시 점고하엿다.

점고를 마친뒤에 전군을 네떼로 나누어 다시 대오를 정하엿다.

또한 화공의 준비도 착실히 채리엿다.

그런뒤 인분、성천、술천、양도등은 각각마튼 부대를 동독하여리현을 향하고 달려엿다.

인분들이 어러케 전군을 네떼로 나눈것은 그 오운산병법을 쓰려는 것이다.

오운산병법은 진실로 그 전술이 희황찬란한 전술이다.

그런데 신라군이 리현 아래에 각까히 일으자 고구려군은 일제히 대궁(大弓)을 쏘기 시작하엿다.

그 무서운 화살은 산아래로 어지럽게 떨어젓다.

連續軍談

名問名答

【問】사람의손구락은 왜하필 다섯개씩인가

【前回의問】서울의 만원선차는 어디다 처치할까?

【答】만국교통박람회에출품

娛樂과 趣味

維納토비쓰映畵★★★ "부록"劇場 (原名 Burg Theater)

★『윌리·포르스트』監督作品

二十一日 若草劇場에서 하루만 特別有料試寫會 50錢

▼▽『원』의 독특한 정서를 영화에 집어 너허서 일지기『미완성교향악』(未完成交響樂)』『회후의이 "원"』등명작을 발표하여 독일영화게의 각방면으로부터 절찬을 밧고 품퍼다 칙체를 깨트리고 잇는『윌리·포르스트』가 이번에 세번째로『원』의 분위기를 어가완성한 작품으로서 전의 두작품보다 우하다고하여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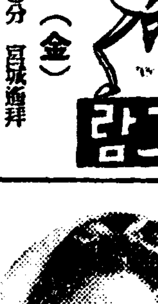
新映畫

▼▽"부룩"극장은"오스트리아"의국립극장으로서오랜 역사와 빗나는 전통을가지고 잇스며 십구세기 또는 이십세기에 잇서서 수만흔명배우를 배출하엿다

▼▽이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취급되어잇는『프리드리히、밋테라-』는 십구세기말에 실재하엿던『부룩』극장전속의 명배우로서 그의 찬란한 무대생활과는 반대로 사생활에잇서서는 도저히 어해할수업는 점이 잇섯다는사실에"히트"를 바더서 드디어 영화화하게된것이다.

▼▽이 이야기는 역사의시대로부터 가벼게 나타난『프리드리히,밋테라-』의 영화와 예술의 고민을 그린것이다(사진은 同映畫의 一場面)

라디오프로그람



十七日 (金)

▲午前七時五○分 宮城遙拜 ▲同七時五一分 (東)라디오體操 ▲同一○時三○分 氣象通報 料理獻立『猪肉』日用品時勢 ▲正午 (東)時報 오늘의아두실것 ▲午後零時五分 獨唱(레코-드) ▲同零時三○分 뉴-스 ▲同一時一五分 家庭時間 겨울育兒講座(五)『育兒常備藥이야긴』 許英肅 ▲同四時 뉴-스 職業紹介 ▲同六時 兒童劇『부지런한개미』 金相德作 柳基興曲 京城童心園指揮 金相德 ▲同六時二五分 어린이新聞 ▲同六時三○分 講演『日米國際拳鬪試合을앞두고』全朝鮮拳鬪聯盟理事 金明坤 ▲同七時 뉴-스 天氣豫報 ▲同七時三○分 講演『結核과豫防』 李鳳徽 ▲同八時(東) 바이올린과管絃樂 一、樂章알레그로·논·트롭포 第二樂章스케르찬드 第三樂章 안단테 第四樂章 론도 바이올린 計久子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指揮 山田耕筰 ▲同八時四○分 西道歌謠 一、極漢歌 二、山念佛 三、朴淵瀑布 四、夢金浦打鈴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九時 唱劇調 一、短歌 雲淡風輕 二、唱劇調 春香傳 李香花 鼓手 韓成俊 ▲同九時三○分 뉴-스解說 ▲同九時四○分 (東)時報 뉴-스 氣象通報 라디오메모 明日曆 ▲同一○時 地方으로보내는뉴-스 ▲同一○時一○分 初步國語講座(三二) 宋今璇

第一放送

▲午後零時五分 (城)三曲 ▲同六時 (仙)이야기 ▲同六時二五分 (經)講演 ▲同七時 (自上海) ▲同八時 (東)빠이올린과管絃樂 ▲同八時四○分 (東)物語 ▲同九時一○分 (東)時事解說

秋の美容讀本 (一)

第一課 入浴前에이것만은 꼭 아라두십시요

入浴前의조공한注意는短時間동안에 딴사람처럼매끈하게 아름다워지는 新美容法을아십니까?方法은大端히簡單하고 費用도極히적게 걸리오니 여러분꼭實驗해주십시요.

▲方法——入浴前에明色クリンシン이라는새로운科學的크림을 얼굴과목에 살짝문질러서그대로湯에드러갑니다. 湯中에서가만히 잇스면 湯氣로毛孔과氣孔이 활짝벌려저서 거기로이크림獨特의『綜合美容成分』이작구浸透해서皮膚의深部에서神奇한美容作用을합니다

그와同時에一方으로는 이크림特有의强力科學的淸掃作用에依해서 皮膚의深部의汚垢가全部分解되여서 表面에吸着해오므로 最後에湯에서나올때꼭짜다오르로垢를닥가내던지、또는石鹼으로살짝씻처내던지합니다. 얼마동안 이入浴을繼續하시면얼골이얼마나 아름다워지는지모릅니다!속으로부터 때가버서서정말 딴사람처럼 아름다운얼골이되고 아무리진운때라도 살이거치러질念慮가 업습니다. 때베끼는데 무엇이조라해도이것처럼 短時日에 이것처럼 徹底的으로 때베끼는方法은 絶對로 달리는업습니다 クリンシン의入浴美容法이라고해서 最近世界的으로 流行하고잇는때베끼는 秘法입니다.

▲明色クリンシン은定價一圓七十八錢 有名化粧品店·藥局에 잇습니다

第二課 粉化粧에이것만은 꼭 아라두십시요

科學의힘으로 從來에업든아름다웁고오래保全되는粉化粧이반드시되는化粧法——을말하기前에從來의粉化粧이 왜좀더아름답게안되엿든가?를調査해봅시다. 化粧前에는반드시 깻긋이洗顔해서 化粧의土臺가되는皮膚를먼저淸潔히해주지안으면안되는데 洗顔直後와入浴後는皮膚組織이弛緩해서 皮脂腺과汗腺이크게벌려저서 皮膚가內側으로부터押出시키는듯한 狀態로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狀態의皮膚에 그대로化粧을햇든것입니다. 그러므로 白粉이좀더아름답게발리지지안엇든것입니다. 化粧의保全도 오래가지안엇든것입니다.

새로운方法으로는 洗顔後와入浴後의얼굴에 반드시明色アストリンゼン을 五六滴바르고 그다음白粉을바르도록 합니다. 明色アストリンゼン은神奇한科學的作用이잇는新强力化粧水로서이것을五六滴얼굴에바르면아무리弛緩한皮膚組織이라도 금방收縮되어서皮膚가內側으로부터吸着하는狀態로됩니다 그러므로이우에化粧을하면白粉이저절로곱게밧고化粧도異常하리만치 오래保全됩니다

그리고 밋바탕크림에도明色アストリンゼン을一二滴거서바르면 化粧하기가어려운대개기름끼는분이라도 化粧前에明色アストリンゼン을바르면神奇한科學的作用으로皮脂腺과汗腺을收縮시켜서 기름과땀의分泌를根本的으로調節하므로 개기름과땀에도零리는분도마음대로의아름답고오래保全되는化粧이됩니다

化粧前에アストリンゼン을쓰는것은지금은世界的常識입니다

▲明色アストリンゼン은定價一瓶五十三錢有名化粧品店藥局에 잇습니다

▲粉白粉의 滋味잇는實驗法

白粉의良否를 대번에안다?

粉白粉의 良否를 대번에아는 재미잇는實驗法을말슴드리겟습니다 틈이날때宅에서實驗해보십시요

▲試驗法……最初얼굴의半面을普通粉白粉으로 化粧합니다 다음에 前보다도 찬신조흔 粉白粉으로다른 半面을 化粧합니다 (다른半面을明色粉白粉과가튼 良質의粉白粉을쓰시면 結果는 一層뚜렷이알수잇습니다) 그래서 二三時間쯤지난 다음거울에 化粧의美를比較해보는것입니다

▲結果……普通粉白粉으로化粧한半面은 白粉이만히버서젓든가 또는 變色해잇든가 하지마는 明色粉白粉으로한半面은 조곰도버서지잔코變色도안해서 처음바른때보다도 一層아름답게되엿슬것을 누구나대번에알수잇습니다.

▲이것은……何故인가? 이것은대체무슨까닭인가?粉白粉의粒子(결)의狀態가全然달른까닭입니다. 明色粉白粉의 粒子『複合粒子』라는特別히 精巧하고微妙한 狀態로 化成되고잇다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高級한粉白粉은日本서는明色粉白粉뿐입니다 (아름다운 新七色定價各四十二錢)

明治座
松竹映畫
11月13日より上映時間表

世紀の樂團	10·00		
ニユース	11·40	3·14	6·40
感激の頃	12·01	3·26	7·02
世紀の樂團	1·25	4·45	8·21

次週上映『セニョリタ』『[illegible]』

若草東寶映畫劇場
11月13日より上映時間表 (早朝割引)

ニユース	10·40	2·30	6·20
花つみ日記	11·00	2·50	6·40
ニユース			
文化映畫	12·15	4·05	8·00
世紀の樂團	12·35	4·25	8·20

11月20日一日限り特別有料試寫會ブルグ劇場
電話本局 [illegible]番

大陸劇場
11月15日上映時間表

母の歌	10·30		
ニユース	12·09	3·33	7·00
支那海	12·29	3·48	7·10
母の歌	2·04	5·18	8·30

釜山 太平館
太平館專屬 ◇人間座◇ 歸鮮上演劇本
李康洙作 現代悲劇 사랑은곳낫다 全一幕
朴英鎬作 時代忍術劇 洪吉童 全編
靑草生作 現代劇 그들의行路 全三幕四場
現代悲劇 이내말삼드러보소 全一幕

黃金座
日活映畫

今日の男性	10·47	2·33	6·19
姉さんのお嫁入り	12·02	3·48	7·34
ニユース	1·05	4·51	8·37
戰鼓	1·20	5·06	8·52

十六日ヨリ廿一日マデ六日間
午前中入場者30セン均一

新富座
十一月十六日ー十八日 毎日晝夜二回 一時 七時映始 大衆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均一
松竹大船特作 ママの緣談 監督 澁谷實 主演 三宅邦子 高峰三枝子
讀賣ニユース
東寶映畫社作 鐵の兄弟 監督 渡邊邦男 主演 高田稔 千葉早智子
ワーナー社超特作 山の法律 監督 マイケル·カーチイス 主演 ジョセフイン·ハッチンソン

東洋劇場
劇團豫藝船公演 十一月十一日밤부터
李瑞求作『물제비』三幕
殷龍山作 喜劇『새아씨經濟學』一幕
次週斷然上演 十八日밤부터 春園의名作……演劇化!
『無情』五幕七場 原作 李光洙先生 脚色 宋影 演出 安鍾和 裝置 鄭泰星 音樂 金仁湜
電話光化門 [illegible]番

優美館
十一月十六日より公開 大衆席料金二十錢均一
コロンビア社超特作西部大活劇 鐵拳第一 チヤールス·スタレット 主演 ブッキストラ トフオート 助演
新興キネマ超特作 女よなぜ泣くか 湯立のぼる 主演
新興キネマ超特作 森の石松 羅門光三郎 主演
事變ニユース

第一劇場
十一月十六日ヨリ十九日迄
米モノグラム社超特作 間諜船 監督 ウヰリアム·ナイ 主演 ノア·ベアリー ツドエルブイン
米ラスピン社提供 ポウラ 原名 世界探險 フランセス·ケシ 主演
全勝キネマ超特作 魔像百萬兩 前篇 女左膳の卷 大津龍太郎 宮川鐵子 主演
晝夜三回興行料金一○
各社ニユース

桃花劇場
十一月十六日ー十八日 晝夜二回 一時七時始映 大衆料金上廿錢下十錢
大毎ニユース
全勝時代活劇 建國驀走隊 監督 金田繁 主演 天津龍太郎
松竹大船特作 按摩と女 監督 淸水宏氏 主演 佐分利信 高峰三枝子
ユナイテット社超特作 當りや勘太 監督 ノーマン·タウログ 主演 エデイキヤンタ エセルエーマン